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기다립니다

- ▶◀ [이달의 인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정수용
- ▶◀ [청소년뉴스] 고운몸매, 여고 교훈 51년 만에 떼어낸다
편의점서 끼니 때우는 청소년, 비만 위험 높다
중고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생각은?
- ▶◀ [학교소식] 진주제일여고 바자회 열어 수익금 전액 기부
경남자동차고 강동근 학생 전국기능대회 '금메달'
경남정보고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최우수
진주외고 여자 소프트볼 그들의 도전이 아름답다
진명여중, 나눔DAY 기부를 통한 사랑 나눔 실천
- ▶◀ [멋쟁년멋반]진주중앙고등학교 2학년4반편
- ▶◀ [멋쟁년멋반-신청]진주고등학교 2학년3반편
- ▶◀ [19금 톡톡] 피임은 상식, 제대로 알아두자
- ▶◀ [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 ▶◀ [틴틴이슈] 숙명여고 성적조작 내신비리의 끝은?
- ▶◀ [글로벌미팅] 우즈베키스탄 알레코바 주흐라를 만나다
- ▶◀ [학교&한컷] 진주여고엔~ 진주기공엔~
- ▶◀ [#네임태그] 나의 이름은 네글자! 그 특별한 이름의 주인공
- ▶◀ [동아리탐방] 동명고등학교 플로어볼 동아리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선명여자고등학교 편
- ▶◀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 ▶◀ [SNS 맛집 검증] KBS 생생정보통, 중앙시장 PP돈까스
- ▶◀ [JOB을 잡아라] 이창룡 감정평가사를 만나다
- ▶◀ [씨네통통] 영화, 트루먼 쇼 (The Truman Show, 1998)
- ▶◀ [필통 그 후]2016년 7월호 이달의 인물, 김누리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을 가다
- ▶◀ [현장취재] 필통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기성장캠프
- ▶◀ [교칙 탐구영역] ① 학교의 외투 착용 규정
- ▶◀ [취재수첩] 생리대를 기부하면 생기부를 써준다고요?
학교는 안전불감증을 교육 받는 곳?
환경오염의 덫가로 수행평가 점수를?
등굣길 공포와 부담, 선토부 꼭 필요한가?
특별반, 노력의 보상 VS 경쟁을 부추기는 차별
- ▶◀ [필통우체통] 독자들모음
- ▶◀ [필통네보로직] 10월호 문제

고3 수험생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시간을 채워 온
여러분 모두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언제나 필통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스러운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정수용

칼을 놓으면 자꾸 떠올라요 펜싱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펜싱부 주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입니다.

Q. 어떤 계기로 펜싱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 초등학교 때 펜싱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티볼, 축구, 배구 등 많은 걸 하다 보니 집에서도 딱히 펜싱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오래 하고 있을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Q. 하루 평균 운동량은 얼마인가요?

— 아직 학생 신분이라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 체육관에서 두 시 삼십 분부터 다섯 시나 다섯 시 삼십 분까지 합니다.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딱히 어려움은 없어요.

Q. 체고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펜싱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는 플러뢰, 에페 두 가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중학교에서는 에페, 개양 중학교에서는 플러뢰를 했어요. 제일 중학교에서는 에페 지도자 분이 계시는 경남체고로, 개양 중학교에서는 플러뢰 지도자 분이 계신 진주기공으로 갑니다. 저는 플러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학교에서 개양 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진주기공에 진학했어요.

Q.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솔직히 힘든 순간은 너무 많아요.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이미지 트레이닝, 컨디션 관리 등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가장 힘든 건 동계훈련이에요. 달리기, 계단 뛰기 등등 체력적인 부분을 요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들어요.

Q. 본인이 생각하는 펜싱의 매력은?

— 펜싱은 계속 하다 보면 힘들지만 막상 칼을 놓으면 자꾸 떠오르는 마약 같은 존재예요. 칼이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또 너무 재미있고 스스로 즐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Q. 플러뢰가 아닌 에페나 사브르를 해 볼 생각은 없나요?

—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도 있고, 함께해 온 코치님과 의리가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파야죠. 저는 계속해서 플러뢰를 할 생각입니다.

Q. 본인이 가장 견제하는 라이벌은?

—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나태해지고 말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래서 오글거리지만 최고의 라이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Q. 롤모델이 있다면?



〈지난 10월 전국체전 당시 정수용선수 경기 모습〉



진주기공, 전국체전 단체전 3위 입상

경남 진주기계고등학교 펜싱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플러뢰 고등부 단체전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펜싱부는 1학년 3명, 2학년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수용선수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변하지 않는 저만의 룰

“놀 때는 놀고 운동을 할 때는 똑바로 운동에만 전념해서 하자”

— 플러뢰 선수 중 허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분과 더불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를 존경해요. 박상영 선수는 제일중학교 선배이기도 하시죠.

Q.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의 기분은?

— 태극마크를 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표로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고 인성이 발라야 되겠죠.

Q. 운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지키자’ 그런 것이 있나요?

— 거창하게 무슨 그런건 없어요.^^ 저만의 룰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놀 때는 놀고 운동을 할 때는 똑바로 운동에만 전념해서 하자” 그거죠.

Q. 나에게 펜싱이란?

— 멋진 수식어도 많겠지만 저에게 펜싱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듯 저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겪게 되는 저만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Q. 앞으로의 목표는?

— 단기적으로는 12월 혹은 1월에 열릴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하고 싶어요. 거기서 입상하게 되면 세계대회라든지, 좋은 기회를 많이 얻거든요. 곧 3학년이 되면 일단 어느 대회든 좋은 성적을 많이 얻어서, 체대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전국 체전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땀어요. 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못 한 것 같아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겸객 정수용

김수용 선수는 2013년 진주 망경초등학교 펜싱팀에 운동을 할 당시부터 각 중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의 두각을 나타냈다. ‘제2회 경상남도 협회장배 개인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플러뢰 개인전 우승 후 정수용선수는 인터뷰에서 “연습할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더 열심히 하여 세계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망경초등학교 시절 박수용 선수(가운데)〉

고등학생을 이긴 중학생 펜싱 선수

2016 펜싱 청소년 대표선수 육성 합숙훈련 플러뢰 내부 1차 평가전에서 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연달아 제압하고 2위에 올라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니이가 캄페’라는 연명별 대표팀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시 16세의 유망주 정수용이었다.

정수용도 박상영처럼 ‘할 수 있다’

정수용은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상영과 같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그래서 리우 올림픽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박상영의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공감했었다. “같은 고향 출신인 박상영 선배님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올림픽에서 힘든 과정을 거쳐 최고의 자리에 오른 모습을 보며 저도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당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리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싶어요. 선수로서 걸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인 청소년 대표를 거쳐 국가대표 상비군,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인 대표팀 선수가 돼 태극마크를 달고 큰 무대에 나서고 싶습니다.” 정수용은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고등학생을 이긴 중학생 펜싱 유망주 태극마크를 달다〉

고운몸매, 여고 교훈 51년 만에 떼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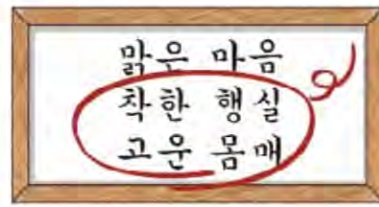
2곳 중 1곳꼴로 순결 등장... 참아라, 용서 등 수동성 강조

‘고운 몸매’라는 교훈을 ‘금과옥조’로 여겨 온 서울의 한 여고가 50여년 만에 교훈을 전격 교체한 것으로 10월28일 확인됐다. 교훈이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순결’ 등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교훈을 가진 여학교들도 ‘교훈 바꾸기’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의 Y여고는 지난 10월26일 51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아 새로운 교훈을 발표했다. 1967년 설립 이래 줄곧 이어져 내려온 교훈인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 가운데 ‘착한 행실’과 ‘고운 몸매’를 각각 ‘바른 행동’과 ‘밝은 지혜’로 바꾼 것이다.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중시하는 사립학교에서 교훈을 바꾸는 것

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학교 측은 논란이 된 ‘고운 몸매’의 의미에 대해 ‘내면의 아름다움에 바탕을 둔 행동의 성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현 자체만 놓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우세했다. 이에 이 학교 학생회는 지난 5월 14일 교훈 공모전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이튿날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같은 법인 소속의 Y여중까지 참여하는 ‘교훈 공모전’으로 확대하고 ‘교훈 변경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TF팀은 5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 교훈을 확정했다. Y여고 학생회장인 최고은(17)양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깨우



치고 변화를 추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뿌듯해했다.

전국 상당수의 여중·여고가 교훈으로 삼는 ‘순결’도 개선 움직임이 한창이다. ‘깨끗함’이라는 뜻 이외에 ‘처녀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순결, 성실, 겸양’을 교훈으로 삼아 온 강원도의 한 여중은 내년 남녀 공학 전환을 앞두고 57년 만에 교훈을 ‘창의적인 생각, 책임 있는 행동, 꿈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훈 개정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동문과 지역사회까지 동참했다.

성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이 반영된 여학교 교훈

지역	학교	교훈
서울	A여고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
서울	B여고	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서울	C여중	경건한 여성이 되자, 부덕(婦德)을 높이자
부산	D여고	겨레의 참된 어머니가 되자
대구	E여고	성실, 협조, 순결
대구	F여중	여성의 참모습을 갖자
경기	G여고	순결, 박애, 자주, 봉사
강원	H여고	성실, 순결, 겸양
전북	I여고	경천(敬天), 순결(純潔), 애인(愛人)
제주	J여중	순결

〈자료: 각 학교〉

편의점서 끼니 때우는 청소년 비만 위험 높다

방과 후 학교 주변 편의점은 가방을 든 학생들로 북적인다. 이들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과 김밥, 각종 인스턴트 음식을 먹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이상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매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라면 같은 면류를 비롯해 샌드위치, 김밥, 과자, 음료수 등 간편식 위주여서 건강이 염려스럽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 등 편의점 음식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좋을 리 없다.



균(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신체 활동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에게 고지방·고열량의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하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

편의점 진열대에는 지방, 정제 탄수화물 등이 가득한 가공식품이 쌓여 있다. 이런 식품을 먹은 청소년 비만은 빠르게 늘고 있다.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26%)은 OECD 평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4명 매일 욕한다

어린이·청소년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매일 한 번 이상 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욕에 대해 5명은 초등학교 때 배웠으며, 2명은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여겨 초등학교의 바른말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한글날 572돌을 앞두고 대전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669명을 설문했더니 42.8%가 ‘매일 한 번 이상 욕한다’고 답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8.7%는 ‘욕을 입에 달고 산다’고 대답했다. 욕을 하는 이유로는 △습관(26.7%) △스트레스 해소(24.8%) △친근감 표시(20.3%) △남들이 쓰니까(8.7%) △센 척하고 싶어서(5.1%) 차례였다. 욕을 처음 배운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49.5%,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24.4% 등으로 응답자의 73.9%가 초등학교 때 욕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49.8%는 ‘욕은 나쁜 말이니 쓰

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22.9%는 ‘꼭 필요할 때는 욕설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청소년들은 직접 만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할 때 모두 욕을 쓴다고 답했다.

화려한 염색·파마... 중고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생각은?

국민 절반 이상은 파마, 염색 등 중고등 학생에 대한 두발 자유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2학기부터 중고생의 머리카락 길이나 파마, 염색을 제한하지 않는 두발 자유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중고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8%가 ‘중고생 두발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20대는 찬성 의견이 비교적 높았지만 40대부터 60대 이상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반대 55.7% vs 찬성 38.9%)이 남성(54.0% vs 41.9%)보다 ‘반대’ 의견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중고생 두발 자유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탈선 우려(45.5%)’, ‘부모 경제적 부담 가중(56.2)’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생 꾸미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편한 교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복장 자율화, 얼굴 화장, 네일아트 등 지나친 꾸미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 예쁘다, 청소년 자해 동영상 유행 어찌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해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 자해 전파, 자해 확산을 막아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자해 청소년들의 수가 2018년 1학기부터 늘기 시작해서 자해하는 문화가 전파됐다. 저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들의 손목 긋기 자해를 포함한 여러 자해를 치료하고 있다”라며 “전염병처럼 번지는 청소년들의 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을 세워달라”라고 호소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 일부 학생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팔목이나 신체 일부분을 칼로 그어 피가 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이달 유튜브에는 ‘피 예쁘다’, ‘자해, 피젤리’, ‘아침에 약한 자해하고 피떡음’ 등의 자해 관련 동영상 여러 개가 올라왔다. 정신과 의사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자살성 자해질환’이라는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해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은 자해를 하



나의 놀이처럼 묘사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한다. 이에 다른 학생들이 쉽게 자해에 노출된다는 것. 일각에선 이들이 타인의 반응과 조회수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고 본다.

진주외고 여자 소프트볼 그들의 도전이 아름답다

10월15일 오전 9시. 전북 익산시 익산리틀야구장에서는 전국체전에 출전한 진주외고 아고와 전남 대표 순천강남여고의 소프트볼 여자 고등부 경기가 펼쳐졌다. 진주외고의 0-17 콜드게임 패. 경기는 프로선수와 초등학교 간 경기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전력 차가 뚜렷했다. 진주외고 수비 때 오죽 답답했으면 심판들이 "서둘러라" "빨리해라"고 가르쳐줄 정도였다.



진주외고 소프트볼팀은 사실 협회에 등록된 정식 팀이 아니다. 물론 교기도 아니다. 그저 소프트볼이 좋아 모인 동아리다. 훈련은 수업이나 시험, 그 밖의 다른 일정에 밀려 가장 후순위.

출전하면서 처음부터 승리하겠다는 욕심은 접어두고 왔다. 평소 실전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이번 체전에서 엘리트 선수들과 실제 경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 장비 정리 등을 하면서도 우울하거나 분하다는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들 활짝 웃고 있었다. 이 학교 소프트볼 동아리는 지난 9월 창단했다. 처음에는 18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1명이 남아있다.

진주시 무료 인터넷망 확대 한다

진주시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10월24일 시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망에 무료로 접속하고, 시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외래 관광객의 관광정보 제공 등 편의성 제고와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우선 올해까지 학생들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32대에 설치되며, 내년에는 진주시 시내버스 232대 전체 설치를 시작으로 관광지, 남강둔치, 혁신도시 강변, 차 없는 거리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 와이파이(WiFi)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 및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서 중학생 농구대 깔려 사망

거제 A중학교에서 농구를 하기 위해 농구대를 고치려던 이 학교 2학년 박모군이 농구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문제가 된 농구대는 지난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넘어진 것을 10월8일 제자리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농구를 하려던 학생 5~6명이 슈팅판 중앙 링이 태풍으로 넘어질 당시 오그라져 농구를 못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이렇게 되자 학생 중 한 명이 박군을 목마 태워 링을 펴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농구대가 학생들 쪽으로 넘어



어지면서 박군을 덮쳤고 박군은 그 자리에서 변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박군은 거제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숨지고 말았다. 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외국어고 자율동아리 연합 체험활동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지난 10월26일부터 이틀간 공무원 특성화반과 자율동아리 연합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캠핑·수상스키체험장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은 캠핑과 수상스키를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토론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다졌다.

경남 52개 고교사·자녀 함께 다녀

경남지역 52개 고등학교에서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7일 교육부의 '교원 부모 및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및 재학 현황(2018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1개 고등학교(교사 900명·자녀 937명)에서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52개 고등학교(교사 95명·자녀 98명)로 이는 경기도 100개교(교사 190명, 자녀 200명)와 서울 54개교(교사 73명, 자녀 75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원 13개교, 진주 6개교, 거창·양산 4개교, 통영·거제·김해·밀양·남해 3개교, 함안·사천·산청 2개교, 고성·창녕·함양·합천 각각 1개교였다.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면 사립 34개교(교사 74명·자녀 75명), 공립 18개교(교사 21명·자녀 23명)로 나타났다.

도내 학교 10곳 중 1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경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0곳 중 9곳에는 화재 초기에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에 따르면 도내 1405개 학교 중 9.67%(136개)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사유 재산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은 현황 조사

진명여중, 나눔DAY 기부를 통한 사랑 나눔 실천

진주 진명여자중학교는 10월19일(금) 등교 시간부터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사랑 나눔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1인 1사랑 나눔Day'는 등굣길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쌀, 라면, 비누 등의 물품을 기부바구니에 넣으면 푸드마켓에서 이를 검수 후 포장 단계를 거쳐 진주푸드마켓 이용자, 초·중학교 저소득층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진주 푸드마켓.푸드뱅크'는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들을 지원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랑나눔 창터로



본 행사는 진주 진명여자중학교와 '진주 푸드마켓.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경남도교육청이 10월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입법예고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입



무담당자(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자동차고 과정평가형자격 응시자 전국 최초 전원 합격

경남도교육청은 진주시 소재 경남자동차고등학교 3학년 산업설비과 학생 18명이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응점기능사)에 응시해 전국 최초로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0월8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CBQ, Course Based Qualification)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를 통해 취득하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형 자격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자격종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은 중소기업 특성학교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 산업체 협약으로 취업이 확정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자세와 마인드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했다. 특히 현장에서 구입한 엽서로 편지를 쓰고, 박경리기념관에서 시낭송대회도 진행했다.

진주 경진고 드론 경진대회 개최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직업계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20일 학교 강당에서 진주, 사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핵심인 드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조종 실력만 겨루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자신의 드론을 조종해 상대방의 드론에 맞추어 떨어뜨리는 배틀 방식으로 실시됐다. 금상은 진주 동중학교 박영철 학생이 차지했으며, 은상은 진주 동중학교 이정민, 대곡중학교 김길규, 동상은 진명여자중학교 이서희, 진주남중학교 이시우, 서성준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드론을 조립하고 조종하는 체험과 학교에서 참여 학생 모두에게 지급한 드론에 큰 만족을 느꼈다.

에서 제외됐다. 도내 학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공립유치원 4.06%(418곳 중 17곳), 초교 11.36%(519곳 중 59곳), 중학교 11.19%(268곳 중 30곳), 고교 15.18%(191곳 중 29곳), 특수학교 11.11%(9곳 중 1곳) 등이다.

진주 봉원중 통영 문학기행 실시

진주 봉원중학교는 지난 10월29일 문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교육복지회원 학생과 독서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와 함께하는 통영 문학기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및 역사의 배경지를 찾아 직접적인 경험과 함께 문학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꾸며져 문학세계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원중은 떠나기 전 기행지 관련 안내 및 관련 작품들을 모아 사전 교육 자료를 배부 하고, 청마문학관 및 청마 생가 관람, 동피랑 마을, 세병관, 중앙동우체국 시비, 김춘수 유품전시관, 박경리기념관 관람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진

진주제일여고 바자회 열어 수익금 전액 기부

진주제일여고에서는 지난 10월 26일(금) 6, 7교시 학교내 청암관에서 배려와 나눔 학습 활동을 통한 제3회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 2학년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기부한 각종 학용품 및 생필품들을 총 61개 매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케냐 엔케리안 학교 여아용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침대와 매트리스, 태양열 전등 시스템, 물탱크 설치에 후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바자회 총 수익금은 2,144,690원이 모였고 전액 기부되었다.



경남정보고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최우수

진주소방서는 경남정보고가 제12회 경상남도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경상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동영상(UCC)으로 제작해 안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열고 있는 이 대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초·중·고등학교의 출품작 중 창의성, 작품성, 위험개선 등의 항목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경남정보고(지도교사 류정현, 김성준)는 '한번 더 확인! 모세의 기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5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경남정보고는 다음달 22일 정부세



종청사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119안전뉴스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해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온 팀들과 열띤 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전국체전 배구명가 선명여고 그랜드슬램 달성

전국 여자고교 배구 최강자 진주 선명여고가 전국체전 타이틀을 되찾았다. 10월17일 전북 익산시 남성고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진주 선명여고와 강원 강릉여고의 결승전에서 진주 선명여고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참가한 3개 전국대회(태백산배, 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전국남녀중고배구선수권)에서 모두 1위 영광을 안은 선명여고에 남은 과제는 전국체전 우승뿐이었다. 이날 선명여고에 두 번의 실수는 없었다. 간결하고 빠른 스윙 폼을 지닌 박혜민과 차세대 국가대표 센터로 주목받는 박은진, 여고부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정호영, 강한 서브와 빠른 이동 공격이 돋보이는 이예솔 등을 앞세운 선명여고는 강릉여고를 설 새 없이 몰아붙였다. 특히 지난 신인드래프트에서 상위픽으로 프로 유니폼을 입은 박은진·박혜민·이예솔은 고교 마지막 무대를 기념하기라도 하듯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진주 경남정보고 김상현 씨름 금메달

진주 경남정보고등학교 씨름부 김상현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상현은 지난 10월14일 전북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고등부 경장급 70kg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결승에서 김상현은 김우혁(문창고)을 2-1로 누르며 경장급 정상에 올랐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씨름 선수로 활약한 김상현은 세상에 게 가장 재미있는 것이 씨름이라고 밝힐 정도로 씨름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상대 사대 부설고 SW교육의 날 드론 체험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는 '2018 소프트웨어(S/W) 교육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11일 교내에서 드론 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내 알고리즘(코딩 학습), 생생수학통(체험 수학), CPU(컴퓨터 실습)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드론 체험교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자 미래 성장산업인 드론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드론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부터 비행 실습까지 운영됐다. 교육 내용은 드론의 원리 및 활용분야, 'Freeflight mini'라는 앱을 활용하여 컨트롤러가 아닌 핸드폰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기본 조종 기술 익히기, 실제로 드론을 조정해 앞·뒤·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플립비행과 Cannon과 Grabber를 활용하여 원하는 물체에 탄을 장착하여 명중하는 체험을 하는

경남자동차고 강동근 학생 전국기능대회 금메달

경남자동차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강동근 학생이 전라남도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페인팅 부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50개 직종에 184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강동근 학생이 출전한 자동차페인팅 부분은 대회에서 표준도장, 조색작업, 도안도장, 광택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를 위해 그는 3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명절 연휴나 공휴일에도 꾸준히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에게는 고용부장관상, 대회장상과 더불어 금 1,200만원, 은 800만원, 동 400만원의 상금과 메달이 수여되며, 직종별 상위 입상자 2명은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발 평가전에 출전하게 된다.

삼현여고 진주시의회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여

진주시의회는 10월25일 의회본회의장에 진주 삼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의회에는 삼현여자고등학교 토론 동아리와 시사동아리 1,2학년 학생 40명이 참석해 직접 의장과 부의장, 의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모의의회에서 학생들은 '버스노선개편과 배차간격 문제' 및 '유등축제 유·무료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질의와 답변, 열띤 찬반토론을 거쳐 직접 표결까지 참여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몸소 체험했다.

진주기계공고, 펜싱 전국체전 단체전 동메달 차지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펜싱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플뢰레 고등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주기계공고 펜싱부는 1972년 창단돼 우리나라 고등학교 펜싱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국가대표선수과 감독들을 배출했다. 특히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를 지도한 감독도 기계고등학교 출신이다. 펜싱부는 1학년 3명, 2학년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결과는 평소 코치와 감독 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훈련을 성실히 한 결과물이다.



등 드론에 대해 배우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아고 3학년 총의진학 출정식



대아고는 지난 9월 29일(토) 아침 진주성 창렬사에서 3학년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짐하는 3학년 총의진학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 운영위원장과 총동창회 회장 등이 참석해 3학년 학생들을 응원해주었다.

진주여고 2019 수능고득점을 위한 기원제

진주여고는 2019년 10월 24일(수) 교직원, 학부모,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봉산 정상에 올라 마련된 행사장에서 고3 수능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는 2019 수능고득점을 위한 기원제를 열었다.

[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한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11월 공청회 거쳐 12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경남도교육청은 10월 18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또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학생생활과 업무 담당으로 전화(☎ 055-268-1239)를 걸어 알리거나, 이메일(sujin0303@korea.kr)로 보내면 된다.

학생들은 가만 있으라...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의 편가르기, 정치 진영간 싸움의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야 할 헌법적 권리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니 어김없이 반대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경상남도를 들쭉서 댄다. 마치 어느 때인가의 태극기집회를 연상시키게 한다.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왜 학교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근거로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생명으로,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이 학생들에게는 어찌 동성애조장이 되고 섹스와 임신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며 좌파정치세력들의 의식화 수단으로 둔갑해야 하는 것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권이 침해받고 학교교육이 마비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라니. 그렇다면 현재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는

교권이 급전직하 했어야 된다. 학생인권조례 수준 그 이상의 학생인권은 보장되는 서구선진국들은 교권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고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우리사회의 인권 수준조차도 담아내지 못하고 구시대적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찌 학생인권조례가 나쁜 내편을 편가르고 좌우니 진보, 보수로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싸울 일인가?

물론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자체가 언더처블의 바이블일 수도 없다. 그것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일이지 저급한 정치공세나 낯 뜨거운 시위와 집회는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 농민, 빈민, 사회적 약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마치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호도해서도, 그것으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 받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흑세무민해서도 안 된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로 떠들썩해도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 그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학교 담장안은 침묵만이 흐른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그랬듯, 가만히 있으라...

학생인권침해, 이제 멈춰야 한다

체벌이 금지되고 복장과 두발규제가 사라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DO YOU STILL BEAT YOUR WIFE?" (당신은 아직도 아내를 때립니까?)

이런 제목의 광고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할까? 난 '시대착오적인 여성체벌을 그만두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광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이 광고는 "왜 당신은 아내를 때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며 아직 아내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때릴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성의 예술'이라며 여성체벌을 미화하는 이 광고는 당시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이고 미덕으로까지 여겨졌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내를 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늘날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동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아내를 때리는 것 또한 심각한 경우나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았고 대체로 '부부싸움'으로 치부됐다. "명태와 여자는 삼입에 한번 씹은 때려줘야 한다"는 말에서 나타났듯 아내를 때리는 것은 남편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되는 경향까지 있었다. 다행히 요즘은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전혀 미화되지 않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아내를 때린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남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즘에도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생 청소년들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청소년은 아직 인간이 덜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두발을 통제하거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시키고

처벌하는, 한마디로 교실을 휘어잡는 것은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미덕으로 여겨진다. 마치 아내를 휘어잡는 것이 남편의 미덕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과연 정말 체벌이 금지되고 복장과 두발규제가 사라진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까?

사실 학생에 대한 두발복장규제가 없었던 시기가 이미 있었다. 바로 80년대인데,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을 준비하며 서양의 선진국들을 흉내 내기 위해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와 교복을 금지했었다. 오히려 당시엔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두발규제를 당했었다. 1987년 1월 17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중고생 두발복장 자유화가 별다른 문제를 낳지 않았고, 학생들의 발랄함을 해방하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노동자 두발규제 폐지의 근거로 쓰이고 있기까지 하다.

머리카락의 자유는 어찌보면 당연한거다.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엄연한 폭력이다. 체벌받지 않을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여성과 노예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폭력을 생각한다면 체벌은 때려도 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정당화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상식들이 학생에게 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들면 소지품을 빼앗고, 발을 쥐도 되는 존재는 인권에서 제외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사실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거다. 또한 교사의 교권을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교사들은 야자감독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 초과근무를 한다던가 소지품압수나 두발복장 검열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노동을 강요받는 일이 사라지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받아야 국가가 정해주는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검열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 사제관계를 망칠 뿐이다.

이번에 경남 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뿐만 아니라 두발규제, 성적차별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총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총과 각종 기독교단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집회와 가두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시민연대의 '청소년행동본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제적인 캠페인과 조례제정운동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청소년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하고 존엄한 '국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길 바란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인권조례 만들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자!

bit.ly/조례만드는청소년
[글쓴이 : 이글(박태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

[외부 필진의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제16조 성적지향, 임신, 출산 차별금지(동성애가능, 음란조장)
-남녀간, 동성간 스킨십, 성행위
-임신, 출산 관련 지도 불가능

제17조 성인권교육 실시
-음란 세뇌교육 : 성적권리
(동성애/양성애/성전환/낙태를 자신이 결정할 성적권리로 가르침)

초등학생이 성관계, 임신해도 인권이니 내버려둬?
(윤리, 책임의식 빠진 음란 세뇌 교육 시행)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측에서 배포한 전단지다. 내용이 너무 선정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은 10월29일 오후 KBS창원총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등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실추되고, 수업시간에 문화행사 및 외부행사가 이뤄져 결국 내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섹스, 임신, 출산 등을 인권 명목으로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틴틴이슈] 숙명여고 성적조작 내신비리의 끝은?

"학교도 친구도 못믿겠어요" 불신의 늪 빠진 고교내신·학생부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가 유출된 상황과 물증이 확인되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수시 비중이 80% 안팎인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은 학생부와 함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1점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시험은 더욱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 등 내신비리가 반복되면서 "숙명여고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내신비리 숙명여고만의 문제인가? 분통 터트리는 학부모들

"우리 선생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긴다. 원래 믿고 따르던 선생님들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게 안타깝다"

내신시험 문제유출 사건은 이번 숙명여고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적발된 것만도 광주 등 3건이고 2014년 이후 13건에 이른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게 수학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 외국어고에서는 교사가 인근 학원 원장과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교내 수상 실적만을 반영

하게 한 뒤부터 고등학교들의 중복·부정 시상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대입 실적을 위해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등 중복 시상이 전국 고등학교 197곳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학생부의 부당한 수정과 조작으로 징계 받은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2건의 징계구가 있었고 이중 15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들이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례가 최근 10년간 591건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건수도 2012년 5만 6,678건에서 2017년 18만 2,405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기도 했다.

■ 공교육과 대입까지 '연줄' ... 공교육 시스템 뿌리째 흔들린다

숙명여고 사태 논란과 관련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뢰성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험출제·관리 절차를 규정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시험지 인쇄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와 감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내신비리는 수시라는 대입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한다"며 "교사 개인의 일탈로 간주하고 그때마다 사람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수시비리 전수조사 △수시비율 20%이하 축소 △정시비율 80%이상 확대 △내신시험 전국단위 시험으로 전환 및 국가관리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최근 채용비리·고용세습 논란으로 불공정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최고의 스펙은 연줄"이라는 한탄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육과 대입까지 '연줄'이라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CCTV설치·상피제 도입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은 공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교내신평가와 대입제도의 개선과 무너진 공교육 신뢰성의 회복에 힘써야 할 때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허상을 고발한다

학생입장에서 바라 본 대입전형의 문제점

과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당연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학생들 역시 많다. 실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와 문제점을 하나씩 얘기해 보려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육 평등을 깨뜨린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을 구별하고, '돈이 많은 학생'과 '돈이 없는 학생'을 구별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한 학생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치른 5개 학기의 내신 성적의 평균,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과 동아리활동, 탐구활동 등을 비롯한 학생의 비교과활동, 봉사활동,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은 그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한다.

이 중 교육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소는 물론 '내신 성적'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 취지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달리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기록부의 요소들도 입시에 반영한다. 이 덕분에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더라도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비교과활동을 통해 내신 성적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정말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생부 몰아받기'를 당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취지와 달리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의 생기부를 가득 채워

줘서 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확률을 더 높이는 제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변질 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돈이 많은 학생'과 '돈이 없는 학생'을 구별한다는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 아마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이 성행하는 나라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사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초 요소인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공부를 '잘' 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 잘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다. 물론 재능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성격을 따져본다면, 재능보다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이해력과 암기력이 고득점의 바탕이 된다.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해력과 암기력 능력들은 사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릴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많은 중·고등학교의 영수학원, 암기위주의 족집게 학원 등은 학원을 다니는 자체만으로 성적이 오를 여지가 있다. 당연히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은 상대적 불평등에 놓이게 된다. 또한 내신 성적이 아닌 비교과 활동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는 갈린다. 인터넷 검색창에 '학생부 종합'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다수의 입시컨설팅학원 홍보링크가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부컨설팅 업체들은 적게는 1회상담 30~40만원, 많게는 1년 기준 1000~2000만원의 돈을 받고 체계적으로 학생부를 관리해준다.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그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야 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의 입맛에 맞춰 상업적인 컨설팅업체가 인위적으로 꾸며주는 속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생활기록부 대리 작성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누가 과연 대학입시가 공정한 경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괴상한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방식, 어이없다!

현행 학종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괴상한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방식'을 꼽을 수 있다.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의사소통하며 교사가 느낀 학생의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은 완전 판판이다. 모든 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교사가 모든 학생의 특성을 꼼꼼히 관찰하고 전 학생의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록해 준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둘째, 내신 성적 1~2등급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만 세부능력특기사항이 기록된다. 셋째,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학생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둘째, 셋째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 한 교과의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수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다. 담임교사가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벅찬 일인데, 100명의 학생을 전부 관리하고 생기부에 '세특'을 적어주는 작업은 다른 어떤 노동보다 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한 교사가 이렇게 많은 학생의 '세특'을 감당해 내려하는 생기부 기록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쑥 1등급 우대받는 현행 입시 제도

올해 2018년이다. 15~20년만 거꾸로 돌아가도 고등학교는 '역전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수능 대학을 노리며 공부했고, 어느 학생에게나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 법. 이런 '인생은 한방'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등장한 것이 '학생부 교과'라거나 '학생부 종합' 같은 새로운 전형이었다. 시험 한 번에 올 인이 아니라, 최소 5학기 동안, 10번의 기회는 주고 집중도를 분산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몸집을 불려 나갔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은 축소되었고, 많



은 대학이 여기에 동참했다. 대학 입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큰 낙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정시입학의 문이 너무 좁아져 1학년 1학기 때 받는 내신 성적부터 미래의 입학대학이 정해지는 비관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앞으로의 내신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능에 맞춘 계획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많은 2학년 학생들은 '나는 정시 파이터야'하고 주위에 알린다. 이미 망쳐버린 내신, 관리하지 못한 생활기록부, 밤샘공부의 귀찮음 등에 떠밀려 '수능'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쑥 1등급'인 학생들만 우대받는 현행 입시 제도를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

우리의 교육은 행복한 나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언제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어떻게 교육이 과한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만 급급할까? '인 서울'로 자칭하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인생은 패배자 취급하고, 자신부터 학벌에 벌벌 떨고 차별한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된 시스템에 집착한다. 그 과정에서 대열에서 이탈한 학생들은 버려진다.

어느 책에 쓰여 있던 글귀가 되새김질 된다. '19세의 '완벽한' 인재 1명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19세의 '행복한' 인간 60만명을 만드는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을까? 좋은 제도라는 겹칠을 뒤집어 쓴 채 결국 불평등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고는 있지 않은지 잘 살폈으면 좋겠다.

[글/박승민(진주교3)]

[19금 토크] 피임은 상식, 제대로 알아두자

피임, 제발 좀 새겨 들어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권장할 순 없다. 남녀간의 성에는 순수한 사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을 막는다고 해결되진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날로 성관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버려지는 아기들, 무분별한 낙태등이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피임은 숨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러내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이야기다.



우리나라 청소년 피임지식 끝까지 수준

최근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연령은 남녀 평균 12.8세와 13.2세라고 한다. 이렇게 첫 성경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더 무늬없이 낮은 피임 실천률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2명중 1명꼴로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98.9%의 청소년들이 피임을 실천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낮은 수준이다.

성, 피임 지식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응답자 중 70%가 피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유럽과 아시아 15개국 중 가장 낮은 지식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피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청소년의 성관련 교육 내용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 신체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은 피임, 낙태, 가정, 결혼, 남녀의 성 심리 차이로 실제 교육과 요구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를 보였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피임교육의 명확한 한계는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청소년 성교육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확신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겠다.

배운성 교육

순위

배우고 싶은 성 교육

성희롱·성폭력	1	피임·낙태
사춘기 신체변화	2	성병
비광직한 이성교제	3	남녀 성심리
성희롱·성폭력	1	가정·결혼
비광직한 이성교제	2	피임·낙태
사춘기 신체변화	3	남녀 성심리

▲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피임'

피임은 임신을 피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질외사정, 월경 주기를 체크하는 방법,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 등이다.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방법을 모르는 탓에 피임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피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피임약 복용법

피임약 복용은 연령 제한이 없다. 하지만 청소년 중에는 피임약 복용을 위해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 관계 후 일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일반 경구 피임약은 관계 후 복용했을 때 큰 효과가 없으며,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작용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데, 피임약은 이렇다 할 큰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복용 초기에 나타나는 것들이고, 규칙적인 복용을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따금 피임약을 오래 복용할 경우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여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피임약을 복용하다 임신을 원할 때 약을 끊으면 임신이 가능한 것을 보아도 이는 잘 알 수 있다.

피임약은 약을 먹는 동안 호르몬을 통해 임신 상태로 몸을 착각하게 하여, 난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원리로 임신을 막는다. 생리 시작부터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1알씩 복용하게 된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면 곧바로 먹는 것이 좋지만, 일정 시간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피임약을 생리 시작보다 늦게 복용했을 때는 복용 시작 후 약 1주일간은 콘돔 등의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경구 피임약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들어있다.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처방받아 복용하면 되는 것이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복용했을 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월경 주기 1번 내에 2알 이상 복용하게 될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여 사후 피임약 복용보다는 경구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하거나, 피임 기구의 활용을 추천하게 된다.

성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행위' 이기도 하지만, 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할 수 있는 생명의 시작점이다. 청소년들이 성을 다루는 여러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올바른 피임법을 배우지 못해 이로 인한 2차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와 함께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 인식에 대해 감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콘돔 사용법 확실히 알아

콘돔 역시 사용 방법에 따른 실수와 콘돔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피임 실패율이 10% 정도입니다. 따라서 콘돔으로 피임을 할 경우 성관계 시에 매번 사용할 것과 사용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량으로 인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돔은 정액 뿐 아니라 성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전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임방법을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성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콘돔의 착용 시점]

"콘돔은 성행위 처음부터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 콘돔을 성행위 중간, 즉 사정 직전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콘돔을 중간에 착용하는 경우, 미처 콘돔을 착용하기 전에 사정을 해버리거나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 기회가 높아질 수도 있다. 남성이 스스로 사정하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 채 사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 전이라 하여도 성적 흥분으로 분비되는 소량의 쿠퍼선액(쿠퍼액)에도 약 100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존재하므로 임신의 위험이 있다. 게다가 성행위 중간에 콘돔을 착용하기 위해 성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성적 흥분상태를 감소시키기도 하므로 콘돔은 발기가 되면 성 접촉을 시작하기 전에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 사용상의 주의!!!

- 항상 사용 하세요
- 반드시 한 겹만 써 주세요.
- 매번 새 걸로 써 주세요. 재활용은 절대 안돼요
- 꼭 정액 주머니를 눌러 공기를 없앤 후 씹어 주세요
- 이상한 것은 바로지 말아 주세요
- 사정할 때 벗겨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잡고 하세요
- 사정 후 생기가 작아지기 전에 잘 벗겨주세요
- 반지나 손톱에 걸리지 않게 살살 다뤄주세요



[교칙 탐구영역] ① 학교의 외투 착용 규정

초겨울인데 마이만? 너무하는 학교의 외투 규정

학생들 불편하고 건강 해치는 외투 규정 보완해야...

진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장은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하고 있다. '동복 마이까지 입었을 경우에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고, 색은 단정한 것으로 한다.' 중, 고등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어 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바로 학교 내에서의 외투착용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언뜻 보기에도 불편할 것 같은 이 규정은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진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삼현여고, 진주여고, 기계공고 등은 동복마이까지 갖춰 입을 경우에만 외투착용을 허용하고 중앙고, 대아고, 동명고, 사대부고의 경우 11~12월 정도의 한겨울이 되어야만 외투를 입을 수 있게 한다. 학교마다 규제정도와 기간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외투는 교복 마이 위에만 착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외투에 관한 규정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J고에 재학 중인 2학년 박 모양은 "마이위에 외투를 입으면 뻑뻑하고 너무 불편해요. 이런 규정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두껍고 잘 늘어나지 않는 마이위에 외투를 입으면 다른 옷 위에 입을 때 보다 훨씬 행동에 불편함이 많다.

또한 마이 자체가 먼지가 잘 묻는 재질이기 때문에 외투를 털이 들어간 패딩 종류를 입었을 경우 마이가 털 범벅이 되는 것도 흔

한 일이라고 한다. 불편함은 이 뿐이 아니었다. 한 겨울이 되어서야 외투 착용을 허용할 경우 늦가을의 환절기가 되면 10도가 넘는 일교차에도 불구하고 교복만 입고 등하교를 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뚝 떨어지는 기온 탓에 추위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으로 하교시간이 늦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을 피해서라도 외투를 몰래 입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하다.

'빈부격차가 드러난다, 학생답지 못하다'
학생들은
공감 못하는 이유들...

이런 학생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빈부격차와 외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삼았다. 교복이외의 사복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빈부격차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이유들이 학생의 자유를 빼앗을 만큼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은 이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단, 비싼 브랜드를 입는 학생은 아주 소수일 뿐이라 설득력이 떨어지고 외투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미 빈부격차는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데 굳이 외투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생들이 통일된 교복이 아닌 사복인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도 있다. 과연 외투를 입는 것이 학생답지 못한 것인지, 어른들의 시선들 때문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바

르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위험을 동반하는 외투 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 번 정해지고 늘 그렇게 해 왔다고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옳은 것일 수는 없다. 학생들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학교의 외투 규정이라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통편집국]



[학교&한컷] 진주여고엔~ 진주기공엔~

진주여고&한컷

리폼.. 색다른 컨셉, 운동장이 런웨이가 되다.
진주여자고등학교의 패션쇼



진주여고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체육대회를 시작할 때 각 반별 패션쇼를 진행한다.

같은 반인 1, 2, 3학년에서 학년 마다 한 명씩 나서서 3명이 한 팀이 되어 패션쇼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에서 지정한 반터를 각 팀들은 컨셉에 맞게 리폼해서 입고 나간다. 반 별 천막이 설치된

운동장 반 바퀴를 따라 진행되며, 디즈니 공주 컨셉, 애니메이션 캐릭터 컨셉 등 매년 색다른 컨셉에 맞추어 선보이는 패션쇼는 체육대회에서 단연 인기가 좋은 행사다. (사진은 2018년 체육대회 패션쇼가 끝나고 패션쇼에 나갔던 모델 동아리 보그 동아리원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다.)

동명고&한컷

미래를 현실적으로 설계하다
2018 경남 청소년 진로직업 페스티벌



진주기공에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며, 경남교육청 후원으로 지난 10월 16일(화) 도내 중학생 및 특성화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3D프린터부터 코딩, 육군, 캘리그라피, 야구선수(NC 다이노스), 바리스타(커피플

라워), 유명 유튜버(거쳐폭격기) 등 20개가 조금 넘게 부스가 열렸으며, 그 중에는 '진로적성 타로' 부스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이력서를 적어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부스로 가서, 1대1 면접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법을 배웠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 정세준(진주기공2)기자]

[맏칸년맏반] 진주중앙고등학교 2학년4반편

우리 학교 대표 인사담임와 아이들 진주중앙고 2학년 4반이 왔습니다~

중앙고 F4이자 인사대표 이한울쌤과 남 부러울 것 없는 학생들이 만나 어느 학교 반보다 뛰어난을 두루두루 갖춘 앙고의 2학년 4반을 소개합니다!!



담임 / 이한울 선생님
올해 중앙고에 와서 학교를 섭렵한 중앙고 대표 인사. 앙고 F4의 대장이고, 인스타를 통해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한다.(인스타 리방함). 엄청난 입담을 가지고 있고 노잼인 이야기도 재미있게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어시간에 재미있는 썰을 자주 풀어주고 국어교사로서의 능력도 훌륭하다. 아자를 썬 애들은 귀신같이 알고 PC방에 잡으러 간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야구를 보러 가는 건지 치어리더를 보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나의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성주	내가 좋아 할 사람	츨다
강예원	목소리가 좋은 사람	집에 가고 싶다.
박다애	선바♡	선바는 술을 잘 마시지
박채연	노잼봇의 얼굴	아오 귀찮아
안지현	눈동자색이 갈색인 남자 ㅇㅈㅎ	웃지 마라...
정수빈	♡신준영♡	나도 사랑해~
정효주	딱히 없음. 느낌이 중요함	재현
진수민	윤시윤을 닮은 남자	2017년 10월 30일 기억할게요ㅠ
채민정	자상한 사람	기차 여행 꼭 가자
천효리	식빵이를 감당해 줄 사람^^	인스타 아이디 : hyoric0119
강선우	웃는 얼굴이 잘 어울리는 사람	동명 가고 싶다
곽성빈	주	연
김경민	정효주	고은아 사랑해
김경호	메추리알을 잘 끼는 재원이	쟁반아 보러갈게♡
김민규	꿈에 나왔던 여자	010-4707-8466 연락 바람
노경환	그닥 없음	딱히 없음
문태영	키 큰 여자	집 가고 싶다
박재원	메추리알을 끼는 경호	돈 많이 벌고 싶다
신수홍	악기 연주 했던 여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이구민	착한 사람	없음
임상훈	단발	나는야 임상훈
정민규	이유비	월남쌈 먹고 싶다
정승준	착한 사람	딱히 없음
정원민	키 160을 넘지 못하는 여자	010-5006-1348
최원석	강선우	할 게 없다고
김혜원	나 같은 사람	딱히 없음
최고은	민형이	경민아 우린 이루어질 수 없어...

주목! 우리반의 멋진 친구들



강성주:글을 잘 쓰고 꼼꼼하다. 국어를 좋아하고 발표를 잘하는 미래 국어선생님 지망생. 공부한다고 밤을 자주 샐 정도로 열심히 한다. 성격이 착하고 차분해서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자를 엄청 좋아한다.



강예원:눈이 정말 크고 러블리한 친구다. 화도 잘 못내는 여린 성격의 소유자.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다.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수준급 노래 실력을 가졌다.



박다애:유튜버 선바에 환장하며 키가 정말 큰 친구다. 그림을 잘 그리며 가끔 엉뚱한 면을 보여준다. 다양한 게임을 즐겨 하며 예전에 했던 데이아웃을 접고 게임게에서 방황을 하며 산다. 얼굴만 봐도 웃긴 섹드러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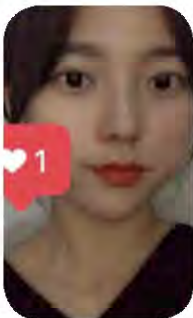
박채연:츨으로 세상을 제패했지만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 입이 매우 짹아서 뱀파에 가면 손해를 본다. 미래 지망생이지만 공부도 챙기는 멋진 친구다. 가끔 수업 시간에 명을 때리는 모습에 귀엽다.



안지현:안경으로 미모를 가리고 다닌다. 고양이 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미지와는 다르게 화끈한 성격을 가졌고 매일 매점에서 소시지 빵을 사 먹는다. 하지만 살이 찌지 않아 부러움을 받는다.



정수빈:다리가 아주 길어 비율이 좋은 친구이다. 운동을 잘하고 춤선이 매우 아름답다. 엄청나게 하얀 피부의 소유자다. 쌍꺼풀은 없지만 눈이 예쁘다.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내 최장수 커플이다.



정효주:생윤선생님이 Doll(인형) 이라고 하실 만큼 예쁜 친구이다. 아이돌 정보에 빠삭하며 똑 부러지고 야무진 친구. 다비드 상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과거 잠깐 자퇴 지망생이었지만 도장을 받지 못해 학교에 남아있다.



진수민:얼굴은 작은데, 눈도 크고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의 소유자. 아이돌보다는 배우를 좋아한다. 앙고에 임재식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 한문공부를 좋아하고 진용쌤(EBS인강쌤)을 따라 세계 · 한국지리에 빠져 있다.



천효리:승부욕이 매우 강하고 운동, 랍도 잘하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친구이다. 자신의 꿈은 장교다. 정시 파이머 모의고사 성적이 파격 성 장했다. 노력에 대한 결 과를 몸소 보여준 친구. 서열이 높으며 주역으로 모든 것을 평정?한다.



최고은:4반의 트윅킹의 신이자 출신중왕 부반장이다. 시크한 얼굴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강아지(공이와 나뭇이)를 키우지만 비둘기를 엄청 싫어한다.



김경호:리버풀의 팬이다. 먹이사슬 최하층이지만 화를 내는 법이 없으며,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이다. 보행용 다리와 장식용 팔을 가지고 있으며 ‘공돌이’ 라는 인형을 항상 안고 다닌다. 이외에도 애착 인형이 수백 가지이다.



김경민:볼 때마다 항상 맛고 있어 불쌍해 보였는데, 사실 자기가 먼저 갑죽대고 맞는 것이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질하고, 자신은 별생각이 없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숨겨진 인싸다. 주도피아에 나오는 누를보를 닮았다.



김민규:개드립을 자주 치며 그때마다 갑분싸가 된다. 체육부장이라 운동을 잘하고 체육교사를 희망한다. 뽀든 잘 먹어 거 같지만 의외의 까탈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



이구민:자신의 얼굴에 자신감이 엄청나다. 다리가 엄청 긴 반면, 걸음이 느리고 덩으로 팔 움직임도 느리다. 전생애 선비나 양반 신분이었을 것.^^ 달릴 때는 휘적휘적 종이 인간이지만 운동을 잘한다. 승무원이 꿈인 친구다.



임상훈:자신감이 넘친다. 인생에 다신 없을 캐릭터를 가진 친구이며 몸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다.(헬스 코치는 천효리) 항상 의욕이 넘치며 에베레스트 등반이 꿈이다. 모두가 비웃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관중이다.^^



신수홍:우리 반의 반장. 축구를 매우 잘하며 식탐이 너무 많아 ‘이거 무슨 맛이야?’와 ‘너만 먹냐?’가 자 동이다. 쉬는 시간마다 옆반에 가거나 매점에 있다. 급식을 두 번 먹는 것은 일상. 황소같은 몸치로 체육시간이면 누구든 밀어붙이고 다닌다.

[맏칸년맏반-신청] 진주고등학교 2학년3반편

언제나 하이텐션 2-3반! 매력있는 학생들, 웃음 넘치는 교실을 채운다!

노랑진 스타 국어강사 슈렉샘, 그리고 국어점수 빼고는 완벽한 아이들이 모였다!

전교1등부터 성대모사 기계까지, 각양각색의 학

생들이 모여서 터트리는 포텐~ 덕분에 3반의 창문 너머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반 모든 친구들이 다재 다능한 매력을 뽐내는 우리 반을 소개한다.



담임 / 정재영 선생님
국어 선생님께서 전교에서 말은 가장 고급지게 하시는 선생님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며 반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은 특히 반 대항전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확인 할 수 있다. 가끔 쓴 소리로 하시지만 항상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선생님이다.

나의 이상형,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강동수	목소리 sexy한 여자	키 184 여캐 강때
2.강웅혁	두호보다 이쁜 토끼상	정시 ♥
3.강운호	미덕을 갖춘 겸손한 여자	승준이 존잘!
4.고시현	나랑 잘 맞는 여자	운호 오빠 ♥
5.김동현	3반 친구들	힘들겠지만 힘내!
6.김민범	노래 잘부르는 여자	누가 MB라고 했냐
7.김원욱	마산 한현경씨	예쁜 현경이
8.김준형	나보다 키작은 사람	나 키 175 ㄱ
9.김지빈	목소리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10.박상준	매력 넘치는 사람	Insta : pxxkcozyboy
11.박세익	상쾌한 사람	자두나라 자두왕자
12.박지훈	키 큰 사람	훈지박/ 김준형 키 172 X
13.배병호	배고하고 시간 많은 사람	치킨 먹여드려요~
14.송한수	돈많고 내눈에 관찮은 여자	Na to the Fla 다 직업병이다.
15.송현석	귀여운 여자	^^7
16.안희찬	잘생긴 여자	김민철 바보!
17.오준섭	진주여고 1학년 2반 박지영	내 사랑 튜브 ♡/ 필통 이제 그만...
18.이승준	귀여운 사람	Insta ID : april2-jun
19.이정우	귀여운 사람	안녕 (그녀에게...)
20.정대영	진주여고 문과생	상준이 데리고 갈 존에 구해요~
21.정우석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
22.정재민	나랑 키 비슷한 사람	김준형 키 속이지마라;
23.조수현	교정하고 조연신은 사람	I from Thailand
24.조 율	'shape of you' 원창가능한 사람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25.홍지민	2D	운명, 머무는 밤 이해하시는 분?
26.황두호	청바지가 잘어울리는 사람	벽돌마음로 놀러오세요~
27.황 현	상냥하고 친절함 사람	그대를 보면 그대에 있는 한줄기 꽃이 피네
28.강우혁	검은 긴 생머리	품질 임박

다재다능 매력 넘치는 우리 반 친구들!



강동수 : 키와 덩치가 커서 딱딱하게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은근히 순진한 친구다. 팔이 굵어 팔 씨름을 잘 해보이지만 매일 지는 동네북이다. 노래는 수준급으로 곧 잘 부른다.



박상준 : 짙은 쌍꺼풀과 눈썹이 매력적인 친구다. 잘 생겼다는 소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굉장한 인싸력, SNS활동을 활발히 한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 반 친구들의 코디를 책임진다. (이 친구는 모솔이다.. ㄱ ㄱ)



이승준 : 귀여운 마스크트. 학생회 선동부장. 학급에서는 체육부장을 맡아 리더쉽을 발휘한다. 가끔가다 비명이나 귀여운 목소리를 내는데 반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3반의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잔잔인데 모솔이란 것이 함정...



강운호 : 학생회 체육부 부장이지만 말장난만 몸매의 소유자다. 공부도 매우 잘하고 재치 있는 입담과 센스로 우리 반 분위기를 들었다 놔다 한다. 우리학교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할 정도로 매력 넘친다.



정대영 : 365일 머리가 3cm를 넘는 적이 없다. 신기하게도 너무 잘 어울린다. 개그와 성대모사를 담당하며 매일 신선한 웃음을 선사 한다. 특히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이수, 위성락 성대모사는 기가 막힌다. 여자 친구가 있으면 늘 웃을 듯.



박세익 : 우리 반 톱기 3대장이다. 성격이 좋고 쾌활하며 체육을 굉장히 잘한다. 혼자 진지하지만 항상 웃기고 귀엽다 라는 느낌이 든다. 돌기 뒤에 숨겨진 문학 소년의 기질로 반전 매력을 뽐낸다. '셰익스피어'라는 별명이 있다.



배병호 :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좋은 친구다. 수업 시간에 굴을 자주 못 봐 아쉬운 친구지만 죽구엔 천부적인 재능. 평소에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어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서 국어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다.



조수현 : 태국계 한국인 친구이고 매력적인 곱슬의 소유자다.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 기계 부품을 잘 가지고 놀뿐 아니라 잘 다룬다. 선생님께서 질문하면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한 어 어려워요"라며 모두에게 웃음을 준다.



강우혁 :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다. 적응력이 좋아 어느 샌가 3반 가족이 되었다. 가끔씩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시 이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놀린다. ㄱ ㄱ 여름엔 더위를 많이 타는 친구라 항상 큰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닌다.



박지훈 : 본명보다 훈지박으로 더 자주 불리며 우리 반 키 업 톱, 자그마치 188cm 이다. 하지만 겁도 많아 반전 있는 친구다. 기본적으로 착하지만 가끔가다 돌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한번씩 한다.



황두호 : 아침마다 사전에서 등교를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성실한 친구다. 성격이 유순해서 친구들의 장난도 '씨익' 웃으며 곧잘 받아준다. 실물은 햄스터? 뉴트리아? 를 닮았다.



이정우 : 우리 반 축구 원탑이다. 자신감이 장점인 친구이며, 인정해야 하는 것에는 곧바로 인정하는 대범한 성격으로 우리반에서 인기가 많다.



김준형 : 유튜브, B를 하면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친구다. 수업 시간 대답을 잘해 수석시간 VIP로 통하며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유행어도 곧잘 만든다. 축구 선수 김민재의 축구화를 선물 받아 소장하고 있다.



송한수 : 우리 반 독서왕. 항상 어렵고 두꺼운 책을 읽는다. 꿈이 대통령이며 정치를 좋아한다. 서울에서 전학와서 말 할 때 마다 표준어를 구사한다. 푸근하게 생겨 백허그를 부르는 몸매의 소유자다.



정재민 : 우리반 반장이다. 공부도 상위권이고 운동도 잘한다. 특히 피구 할 때 재민이의 센스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요즘 흰색 후리스를 즐겨 입는데 북극곰처럼 푹신푹신 해보여 배고 자보고 싶은 친구다.

[씨네통통] 필통 백투더 시사회

영화, 트루먼 쇼 (The Truman Show, 1998)



필통 2학기 개편 새 코너 중 하나다. 필통기자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오래된 옛날 영화를 한 편 선정, 함께 모여 그들만의 시사회를 가진다. 감상도 쓰고 평론도 하고 평점도 매겨본다고 한다. 그 첫 시사회의 영화는 '트루먼쇼'이다. 신선했던 영화. 그 당시엔 우리가 마주 하는 현실 또한 짐캐리의 세상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그 영화다. 2018년 청소년들은 20년전 짐캐리의 연기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들의 감상평이 기대된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
(혹시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인사 하죠,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이트!)

독특한 발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트루먼 쇼>
5천대의 몰래카메라, 24시간 365일 생방송되는 그 남자의 일상!
<죽은 시인의 사회> 피터 위어 감독의 기발한 휴먼 드라마!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1998년 10월에 개봉한 영화로,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호주 출신의 '피터 위어'가 감독을 맡았으며, 짐캐리가 주연을 맡았다. 각본은 <가타카>의 감독 앤드루 니콜이다.

코미디 전문배우 짐 캐리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트루먼'역을 맡아 연기변신에 성공하여 1999년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었으며, 또한 영화 속 '트루먼 쇼'의 책임 프로듀서 '크로스토퍼'역을 소화했던 '에드 해리스'(설국열차의 윌포드)또한 골든 글로브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었다.

제작비는 8000만 달러를 들였으며, 전미 흥행 1억 2천5백만 달러를 포함 전세계 2억6천만 달러(\$264,118,201)가 넘는 극장 수입을 거뒀다. 트루먼쇼는 1998년 국내 개봉당시 서울관객 294,928명을 동원했었다.

<트루먼 쇼> 줄거리

'씨 헤이븐'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 30살의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는 유쾌한 보험설계사이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은 그렇다.

트루먼은 8살 때부터 함께해온 '말론'(노아 에머리히)이란 친구가 있으며, '메릴'(로라 린니)이란 여인과 결혼하여 나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린 시절 아빠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던 어느 날 하늘에서 '시리우스'라는 글자가 적힌 조명이 떨어지고, 익사한 것으로 알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났으나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빠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활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트루먼은 사실 5000대 넘는 카메라를 통해 하루 24시간 17억 시청자에게 생방송 되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그의 탄생부터 3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일상을 TV를 통해 보고 있다. 그는 만인의 스타지만 정작 본인은 짐작도 못하고 있다. 그의 부모, 20년지기 친구와 아내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배우이고 사는 곳 또한 위성에서도 보일만큼 큰 인공도시이다.

그런 트루먼이 진실에 알아채게 되고 탈출을 시도 하는데..



감독: 피터 위어[1] / 각본: 앤드류 니콜 / 출연: 짐 캐리, 로라 린니, 노아 에머리히, 에드 해리스 등 / 장르: 코미디, 드라마 / 제작사: 스콧 루던 프로덕션 / 배급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 개봉일: 미국 1998년 6월5일, 한국 1998년 10월24일 / 상영 시간 03분 / 제작비: 8000만 \$ / 수익: 2억 6400만 \$ / 총 관객 수: 한국(서울관객 294,928명을 동원) / 국내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백투더 시사회 평점] ★★★★★ 9.4/10

기발하고 재미있지만 한편으론 잔인하고 무서운 영화! 그리고 사생활 침해, 범 국가적인 통제, 리얼리티 방송 등 다양한 뜻을 지는 대명사 '트루먼 쇼'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꼭 봐야하는 영화가 아닐까?



참가자	평점	감상평	추천하고 싶은 사람
박정현 (17) 진양고	★★★★★	남자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한 모습이 인상 깊었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	담임선생님
김단희 (17) 동명고	★★★★★	주인공 트루먼이 자신을 모두 속이는 세상에서 벗어나며 마지막 세상에 남기는 말이 너무 멋졌다.	동명고 1학년 박경민
정병훈 (17) 진양고	★★★★★	동명고 1학년 박경민	진양고 1학년5반 친구들
K J H (18) 진주고	★★★★★	TV쇼 안에서 살고 있던 트루먼이 탈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트루먼이 불쌍했다.	장지훈
권수민 (17) 진주고	★★★★	진양고 1학년5반 친구들	짐 캐리 팬
정인찬 (18) 진주고	★★★★	모두가 찌고 친 진짜 누구나 생각해 낼만한 그런 영화였다. 이런 영화를 처음 보는데 보는 동안 내용이 헛갈리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노오기 교감선생님
장은영 (17) 진양고	★★★★	장지훈	내 폐미를 엿보는 어지호 학생
어지호 (17) 진양고	★★★★★	진짜 자유를 알려 준 영화. 편안하고 안전한 완벽한 삶보다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영화 PS.로렌 잘생김	MTA태권도 수련생
정다빈 (17) 진양고	★★★★	짐 캐리 팬	충무 주짓수 친구들~
주재우 (17) 동명고	★★★★	한 번쯤은 생각할만한 아이디어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이오는 전개가 조금 답답하다.	동명고 1학년 박경민
이현경 (18) 중양고	★★★★	노오기 교감선생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
염성인 (18) 중양고	★★★★★	하지만 영화설정이 매우 참신한 듯 하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는 것은 재밌을지도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서 내가 트루먼 이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트루먼 이었으면 정말 절망적이고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다.	인생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성준 (17) 진주고	★★★★★	내 폐미를 엿보는 어지호 학생	진주고등학교 1학년2반6반 권효준
곽병규(17) 진주고	★★★★★	우선 영화의 소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방송으로 내보낸다' 라는 것이 너무 신선했다. 이 영화의 주연배우인 짐 캐리를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 더 재미있었다.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화가 주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 명작



<트루먼 쇼>는 영화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있는 명작이다.

그리고 나란히 골든 글로브 남우 주연상과 조연상을 수상한 짐캐리와 에드 해리스의 명연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 짐 캐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상 리뷰



꼭 보세요.. 최고의 영화입니다.. (stan****)

☞난 가끔 차라리 세상이 거짓말이었으면 심을 때도 있던데. 트루먼은 세상에 나와서 잘 살았으려나 모르겠다. 수많은 광고에 둘러 쌓여 진실로 내 선택임을 모르고 사는 나는 트루먼의 삶과 크게 다름을 모르겠다. 거대한 자본은 내 삶의 또 다른 감독이 아닐까? 내 삶을 내 손으로 직접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짐캐리의 마지막 인사는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날 정도로 여운이 깊다.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yun****)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한 명작이죠. 아빠의 이미지인 기획자의 진심 어린 듯 한 조언을 뿌리치고 진짜를 찾아가는 트루먼의 행위는 우리 인생과 닮았죠. 결국 트루먼이 새로운 길로 내달리고, 그 다음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기대하는 관객의 기대에 어긋나게 그 열렬했던 시청자들은 관심을 바로 끊고 다른 채널을 찾아가죠. 그 장면에서 인생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에 가슴이 벅차다가도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영화네요.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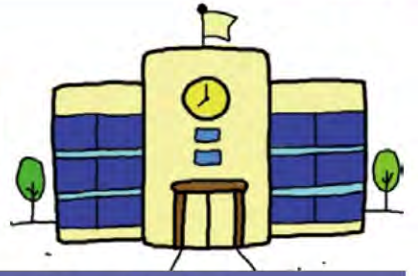
☞대단한 상상력.. 이런 쇼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그 상상력이 섬뜩하다. 마지막 짐캐리가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나올 때 시청자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열광하는 모습.. 결국 우리 모두는 그가 거짓 세상을 알아차리고, 진짜 세상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랐던 것..... 근데 과연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진짜일까?? 결국 누군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트루먼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하는데.. 쉽지 않다.. (행복한 달팽이)

☞단순한 코미디 영화의 차원을 넘어 사람이 사람의 삶을 강요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하는 인권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단한 수작. 인위적인 환경을 넘어 목숨을 걸어서까지 대양 밖의 다른 삶을 꿈꾸는 주인공의 도전정신에 대해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개년 히터)

[취재/ 곽병규(진주고1)/ 장은영, 정병훈(진양고1)기자]

[우리 학교에만 있다] 선명여자고등학교 편

외식조리학과, 배구 국가대표 그리고 교실 생일파티!



진주에는 유일한,
외식조리학과가 있다

선명여고는 특성화고로 금융회계과, 경영정보과, 그리고 외식조리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회계과에서는 회계분야의 은행과 기업 분야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경영정보과는 실무과목의 경영 전반 분야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진주 유일의 외식조리학과는 외식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와 관련된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사 및 주방장, 제과원, 제빵원, 바리스타 등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 외식조리학과 1학년 대상으로 한 교생실습 공개수업〉

출전하면 우승, 전국 최강 배구 명문
여자 배구 국가대표가 있다!

선명여고에는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너무 유명한 여자배구부가 있다. 선명여고 배구부에서는 국가대표 현직이 한 둘이 아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박은진 선수, 박혜민 선수, 이예솔 선수는 현직 국가대표다. 지난 10월 17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여김없이 배구 여고부가 우승했다. 선명여고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구 명문이고 학생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 지난 10월 17일 전국체육대회 우승 후〉

한 달에 한 번 교실마다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생일파티가 있다!

선명여고는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사를 가진다. 매달 초에 학교에서는 그 달의 생일자 학생들을 위해 교실마다 파이류와 막대과자와 그리고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모든 반 학생들은 이것을 받으면 파이류에 막대과자를 꽂고 작은 케이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한 축하 노래를 부른 후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행사는 지난해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며 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 선명여고 학생들에게 나눠준 푸짐한 간식〉

[취재/ 하지영(선명여고1기자)]

[#네임태그] 필통 인물 탐색기

의미 있고 예쁜 순우리말 이름을 찾았습니다

〈필통 인물탐색기〉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여러 가지 재미있고 다양한 기준이나 공통점으로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저번 호 순우리말 이름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보통의 이름은 두 글자, 세 글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그 규칙 아닌 규칙을 벗어난 친구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더 긴 이름이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네 글자 이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4인 6문 6답

1 자기소개 해 주세요! 2 본인이름 소개해주세요! 3 별명 소개해주세요!	4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랑 한가지해주세요! 5 자신의 이름이랑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6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	--



최요안나
(삼현여고)

- 1** 안녕하세요. 삼현여고 1학년 최요안나 라고 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 3** 요애나, 최요엘사, 안나는 여드름 안나?, 인내! 이거 안났?, 안나 팬안나? 등등 이요!
- 4** 이름이 다른 친구들보다 길고 특이하다보니 다른 사람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잘 기억 해 주는 것 같아요
- 5**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거의 모든친구들이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하면서 다가오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친구들이 모두 "GO away, anna" 하면서 장난치고 했었어요. 또 어떤 심리검사를 하는데 이름 작성하는 OMR칸이 세 칸 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제 이름이 '최요안' 이 된 적이 있었어요!!
- 6** 이름은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소중한 것이니까 자기이름을 사랑하고 다섯 글자 이름도 나쁘지 않은것 같군요!!



오솔푸름
(삼현여중)

- 1** 저는 삼현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솔푸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2** 제 이름은 언니들이랑 솔자 풀림으로 자어졌고 태몽이랑 관련 돼 있는데 꿈에서 소나무가 되게 높게 푸르게 있다고 해서 푸름이라고 지어 졌습니다.
- 3** 별명은 조금 많은데 오푸, 풀이, 오솔이, 오구오구, 푸르미 등등 있습니다.
- 4** 이름에 대해서 자랑까지는 아니고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라서 얼굴을 몰라도 이름은 알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 5** 이름에 대해 에피소드 같은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수행평가 할 때나 시험칠 때 이름 한글 자 더 적기 귀찮습니다.^^
- 6**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중학교 절대 오지마세요. 세상 쏠대 다 모여 있습니다.



사우리아
(사대부고)

- 1**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사우리아입니다.
- 2** 인도어로 '용기'라는 뜻입니다.
- 3** 지금 친구들은 절 사우라라고 불러서 별명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사우니, 우라차차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 4** 제 이름의 뜻자체가 '자랑' 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지으셔서 더 자랑스러워요. ㅎㅎ!!
- 5** 여릴 적 의료보험증 만들때 발음이 잘 안되서 아직도 병원에서 쓰야라고 불린답니다.ㅠㅠ
- 6**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손다니엘
(진주고)

- 1** 진주고 2학년 8반 손다니엘 이라고 합니다.
- 2** 세례명은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에 실제로 손다니엘로 기재되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사기하면 신하들이 다니엘을 몇 알짜 굶고 있는 시자 굴에 넣었는데 오히려 사자와 친해지고 용감하게 나가는 인물로 나와 있어요.
- 3** 발다니엘, 다니엘루, 강다니엘이 있어요.
- 4** 아무래도 이름이 특이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이 잘 기억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 5** 여러가지가 있지만 항상 학기 초나 나를 아예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외국인 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외국인이야?' '외국에서 살다 왔어?'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 6** 환절아 사랑해~ 그리고 다른 애들 나 입자 있으니까 건들지마.

[취재/ 정의찬(진주고2), 김민수(명신고1)기자]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나를 표현 하는 것 & 내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동명고 2학년

강태영

Q: 나에게 패션이란?

A: 나를 꾸미는 수단

Q: 나만의 옷 입는 팁!

A: 내 체형에 맞게 사장님께 코디를 맡긴다.

FASHION PEOPLE

경해여고 1학년

이예은

Q: 나에게 패션이란?

A: 나를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해주는 것!

Q: 나만의 옷 입는 팁!

A: 인스타그램이나 쇼핑몰들에서 피팅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로 참고해요.

TYPE 1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남친 룩

"잘 보이고 싶은 여사친, 여자 친구와 데이트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남친룩!"



〈올크롭 가디건 4.2〉

〈라운드 니트 2.5〉

〈롱와이드 슬랙스 2.9〉

〈해군 단화 4.0〉

〈구매처 : puzzle〉

TYPE 2

베이직, 그러나 색감과 핏이 포인트인 미니멀 룩

"비슷한 색감의 톤온톤, 독특한 핏, 이게 인싸! simplest is hottest"

단가라 반목티 2.0〉

레터링 기모 맨투맨 3.9〉

세미와이드 청바지 4.0〉

〈구매처 : puzzle〉



TYPE 1

친구와 시내 갔을 때 입은 옷

"편하지만 꾸민 느낌이 들도록 맨투맨에 치마를 코디했고, 생길 게 많아서 가방을 땀지만 생각보다 매치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편하게 벨크로로 된걸 신어서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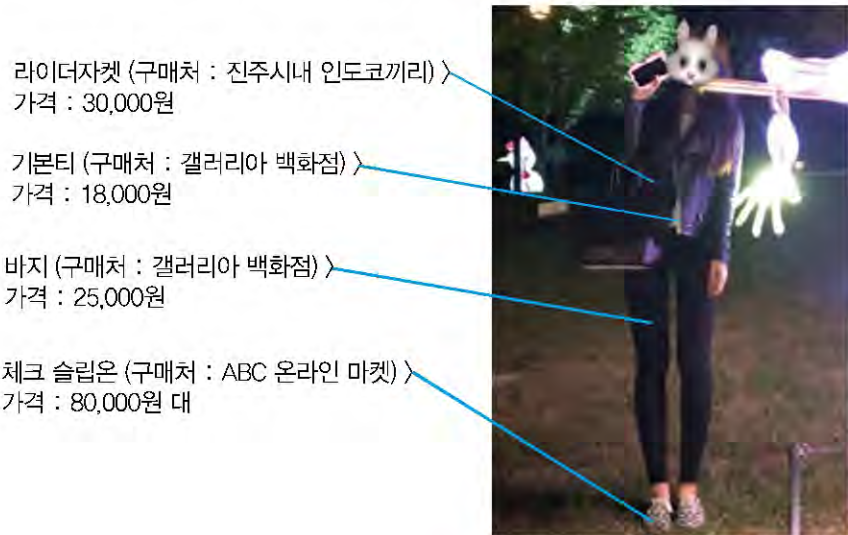
〈맨투맨 (구매처 : 진주시내)
가격 : 15,000원〉〈가방 (구매처 : VETEZE)
가격 : 47,500원〉〈체크치마 (구매처 : 진주시내)
가격 : 15,000원〉

〈단화 (구매처 : 언코리 공식 온라인매장) 가격 : 50,000원〉

TYPE 2

유등축제 놀러갔을 때 입은 옷

"기본 흰티에 경정스키니를 입고 라이더 자켓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할 것을 대비 신발도 편한 걸로 신고, 블랙이랑 화이트로 입고 싶어서 신발로 맞춰봤어요!"

〈라이더자켓 (구매처 : 진주시내 인도코끼리)〉
가격 : 30,000원〈기본티 (구매처 : 갤러리아 백화점)〉
가격 : 18,000원〈바지 (구매처 : 갤러리아 백화점)〉
가격 : 25,000원〈체크 슬리폰 (구매처 : ABC 온라인 마켓)〉
가격 : 80,000원 대

진주 시내 옷가게 p를 방문하다

중, 고등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내 옷가게 p를 방문해 사장님에게 10대들의 실전 패션에 대한 조언을 들어 보았다.

Q: 어깨가 넓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넓어 보이기 위해서 딱 맞는 사이즈보다는 약간은 오버핏의 사이즈를 입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어깨가 작아 보려면 나그람이나 옷을 보면 어깨선이 잡힌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선 없이 루즈한 느낌으로 입으면 보완하기 좋아요.

Q: 마르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입었을 때 괜찮은 옷은 어떤 게 있나요?!!

A: 마르다고, 피부 톤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색상이나 딱 맞는 옷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너무 한정적이 되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다고 '이건 안 맞아'가 아니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어둡다면 비비드한 색상의 옷들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

울립니다. 무채색의 계열의 옷은 이제 좀 그만 입어요.^^

Q: 다리가 얇아 보이는 바지는?

A: 친구들도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여러 가지를 봤을 테지만, 너무 딱 맞는 바지를 입으면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스니키진 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통을 입는다면 보완하기 좋을 거야. 통 있는 걸 입으면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완전한 와이드 말고 일자바지나 세미와이드 등 핏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붙게만 입지 않으면 되죠. 특히 통은 절대 수선 안 해도 된답니다.

Q: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는?

A: 요즘 유행은 롱 와이드 슬랙스나 청바지는 기장을 길게 입는 건데, 이전에 친구들이 기장도 짧고 통도 붙는 바지를 입었다면 반대로 통도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입기도 좋고 기장이 신발을 덮어요. 아빠 바지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느낌 있는 학생들은 어떤 건지 알거예요. 확실

히 짧은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입어보고 우리 도전해 봐요. 정말 길어 보여요. 패션도 결국 도전하는 거니까요.

Q: 10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새롭기도 하고, 신기해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혹시나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봐도 좋아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 딱 정해진 옷에 비슷한 스타일을 많이 입는데 개인적으로 자신을 더 꾸미고 표현했으면 합니다. 사이즈가 크다, 작다,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라는 친구들의 말 말고 자신이 봤을 때 이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이 입고 싶은 옷 당당하게 입고 다녔으면 합니다. (-PUZZLE-)

[SNS 맛집 검증] KBS생생정보통, 중앙시장 PP돈까스

청소년들의 최강 먹거리 중앙시장 가성비 완전 갑! PP돈까스

먹방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SNS상에서는 맛있는 먹거리뿐 아니라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명한 맛집들의 홍보와 후기들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필통에서는 진주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SNS에 유명한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을 직접 찾아 그 맛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중앙시장에 돈가스 맛집이? PP돈까스를 찾아가다!

2012년 11월 28일, KBS 생생정보통 557회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집이다. 그 외에도 SNS에서 자주 언급되어 진주 맛집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주메뉴가 돈까스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NS 진주 최강 맛집 중 하나다. 중앙시장 외각에 위치한 PP돈까스를 검증해 보았다.



〈KBS 생생정보통, 초저가 수제돈까스 방송〉



뭐가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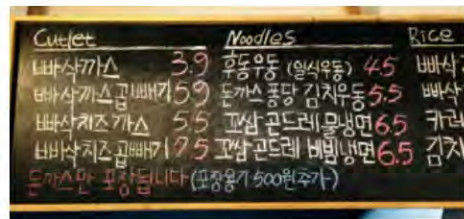
1. 특별한 소스 제조법

처음 가보면 소스 대신에 웬 작은 절구통이 놓여져 있는걸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안에는 깨가 담겨 있는데, 그 깨를 빻고 그곳에 소스를 부어 먹는다고 한다. 깨의 고소함과 돈가스 소스의 달짝지근함이 합쳐져 신기하면서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 따로 입에 맞지 않는다면 따로 놓인 돈가스 소스를 이용하면 된다.



2. 놀라운 가격

일반 돈까스를 시키면 보통 기본 5000원을 넘기는건 기본이다. "PP 돈까스"는 일반 돈까스보다 더 품질 좋은 돈까스를 제공하지만 단돈 3900원에 맛 볼 수 있다. 아주 싼 가격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학생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3. 샐러드 소스와 돈가스소스

돈가스소스는 달콤하고 여러 과일들을 넣은 맛처럼 깔끔하고 좋았다. 샐러드는 튀김을 계속 먹었을때의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기에 딱 좋았던 소스였다. 특유의 상큼한 드레싱이 입맛을 돋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요런 역할도!



4. No 베타믹스 & 먹는 법

100% 냉장 돈육을 사용한다는 이곳의 돈가스는 베타믹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고기에 계란 묻혀서 튀김옷을 입히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돈가스 요리에 본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니 놀랐다. 주문하고 가게 내부를 둘러보면 먹는 법이 설명된 안내판이 보인다. 김치 빼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산으로 안심하고 먹어도 될 듯하다.



- ①절구통에 깨를 빻아준다. ②파란색 뚜껑에 있는 돈가스 소스를 넣는다. ③하나하나씩 돈가스를 찍어먹는다. ④빨간색 뚜껑에 있는 야채소스는 야채에 뿌려서 먹는다. ⑤맛있게 먹고서 웃으며 나간다!

찾기 힘들나?

주소는 진주시 축석로 266번길 10(장대동61-1)

중앙시장 다이소에서 시장 안으로 직진/ 구 채소공판장 맞은편에 위치. 약도상으로보면 큰 도로변이 아닌 한 블록 안쪽 도로로 들어와야 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오후 8시 30분까지다.
휴무 : 월요일/ 브레이크 타임 : 15시~17시/ 현금으로 선불 결제 환영.



진주 시내 맛집, PP돈까스 외관이다. 가게가 작다.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없다. 점심시간에 가면 웨이팅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입구 바로 옆에 tv 출연했던 방송이 나오고 있다. 웨이팅 해야 할 때 보고 있으면 좋을 듯.

실제 기자들의 취재 후기

하수진(사대부설고2) 기자

먼저 돈가스 소스를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 독특해서 흥미로웠다. 빠삭까스는 명색이 '빠삭' 가스인 만큼 바삭했고 담백했다. 빠삭치즈까스는 치즈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나서 아쉬웠고 후동우동은 얼큰?매콤?칼칼? 했다. 우동에 새우튀김을 따로 주시는데 바삭함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인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다. 빠삭 가츠동은 양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가츠동에 나오는 돈가스는 빠삭까스보다 좀 더 질긴 것 같았다.

임수중(진주고2)기자

깨의 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돈가스 소스와 깨의 조화가 오묘하게 어울려 신기했다. 싼 가격이기엔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생각을 깨버렸던 맛집이었다. 웬만한 돈가스 집보다 훨씬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맛있게 먹었다.

일반 학생 손님들 Interview

S고 2학년 B양

처음에는 시장 구석에 있어 개인적으로 찾아오기가 힘들었다. SNS상에 좋은 평이 많았지만 긴가민가하고 찾았는데 실망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다. 그리고 시장통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가게 외부 모습부터 내부 인테리어, 맛 삼박자가 완벽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J고 2학년 A군

학교와 가까워 학교 끝나고 자주 와서 먹는 집이다. 단골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이 돈가스 집은 달랐다. 한번 먹자마자 그 맛에 반해버릴 정도였다.

생리대를 기부하면 생기부를 써준다고요?

대가성을 바라는 기부는 이미 기부가 아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주 기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장애인 재단에서 만든 물건 사기, 저금통에 동전을 담아 가져오기, 기부 단체에서 주관하는 편지 쓰기 등이 그 일반적 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금은 특별한 기부가 눈길을 끈다. 바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리대를 기부하는 것이다. 더욱 특이할 만한 것은 이렇게 생리대를 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써준다는 것이다. 기부도 좋고 생기부에 기재 되는 것도 좋지만 왠지 좀 개운치가 않다.

그런데 이 기부가 늘어갈 수록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생리대 기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부상조의 기부 형식으로 학생들이 일방적인 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일정 정도 기부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생리대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리대의 평균 가격은 개당 331원으로 미국과 일본의 181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그런데 이런 생리대를 낱개도 아닌 통째로 포장 된 생리대를 기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기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기부가 학생들에게 민감한 생기부

에 기재된다고 하니 결국 돈으로 생기부를 쓰는 꼴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부의 의미를 벗어나 '생기부의 내용을 늘리기 위해 기부를 한다.'는 오해를 낳고 애초에 가진 좋은 취지를 잃게 만들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학생들은 이러한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아마도 기부보다는 생기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구매할 수 없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쓰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부의 본래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또는 자신의 재능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이 하는 기부 또한 그 뜻을 알고 보람을 느끼기 위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생기부의 한 줄을 대가로 기부하는 행위, 학교측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정말 우리(we)를 위한 곳인가요?

선생님, 그건 비밀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한다. 성적 고민, 친구와의 갈등, 교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고민은 수도 없이 늘어난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준 쉼터가 있다. 바로 위클래스(wee class)다.

'위클래스' (wee class/친한 친구 교실)는 교육부가 2009년 1월부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상담교실이다. wee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십 년, 처음 꿈꿨던 그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동의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듯하다.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오히려 위클래스의 존재로 더욱더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줄곧 학생들의 가장 큰 불

만을 사 온 '비밀 유지' 문제도 여전하다. 상담사는 비밀을 지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로인해 학생은 또 다시 상처받고 있다. 왜 상담사는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까?

Wee클래스 상담 시 비밀 유지 원칙이 깨지는 조건은 네 가지가 있다. 1)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 2)자해, 자살시도를 했거나 할 의도가 있는 경우, 3)학부모가 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4)공공기관이 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경찰서, 병무청, 병원)에는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 조건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Wee 클래스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담임교사에게 결코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어느새 공유 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비밀 유지 원칙의 예외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증언들 역시 한가득이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 존재하는 '또래상담반' 역시 그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긍정적 요소도 있겠지만 상담을 전문가의 영역 밖으로 퍼트리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가 부족하면 똑같은 전문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학생에게 상담을 맡겨 1차 보안부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 따라, 상담교사에 따라 보안이 철저한 곳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 때문에 상처받고, 그 고통 안에서 아파하는 학생들이 있다. 한 번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식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사고를 넓히고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에 더 많은 전문 상담인력이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른다. 힘들고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비상구가 되고 친구가 되어 줄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위클래스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상담사 역시 힘든 여건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이 내민 손을 절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취재/ 권수민(진주여고1)기자]

청소년증, 알고 있었나요?

청소년증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 개선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갈 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할인 혜택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보통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발급받은 학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학교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지갑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학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신분증이다.

하지만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일명 '학교 밖 청소년' 들은 이 학생증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둘은 발급 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다면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

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까?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고 나서 2~3주 후 발급되며 사이트(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등기 수령일 경우 비용은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은 은행거래, 시험응시(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문화시설, 편의점 선물결제도 가능하다. 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는 각종 시설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런 편리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청소년증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18살 K씨: 청소년증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퇴한지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됐어요.

17살 J씨: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청소년증을 몰라서 입장을 시켜주지 않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분명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공식 신분증이지만 턱없이 낮은 인지도 탓에 학생증에 비해 실제 사용처에서의 사용이 불



편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현재 청소년증은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소년의 10%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학생증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공식적인 신분증으로서 역할, 생활의 편리함까지 얻을 수 있다.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통해 청소년증을 더욱 알리고 청소년들이 더 많은 복지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재/ 원지현 기자]

[필통 그 후] 2016년 7월호 그달의 인물, 김누리

행복한 제빵사를 꿈꾸던 그때... 이젠 행복한 나의 케익을 만들고 있어요

필통은 2013년 재창간 되었다. 이번호로 48호째다. 필통에는 항상 표지인물이 실리고 이달의 인물로 다양한 친구들이 독자와 만났었다. 대부분 자기만의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미래를 당차게 준비하던 친구들이었다. 문득 그들의 현재 모습이 궁금해졌다. 오래전 필통 표지를 장식했던 '이달의 인물'을 찾아 그들의 현재 진행형일 것 같은 꿈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이번호는 2016년 7월호 표지인물인 당시 진주여고 2학년이었던 김누리씨를 찾아 보았다.

Q1. 필통 이달의 인물이셨죠?
- 안녕하세요! 2016년 7월에 필통 표지모델을 한 번 했었고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한 20살 김누리입니다.^{^^}

Q2.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빵집에 취업을 했죠. 3월까지 울산에서 일했는데 올해 4월부터 진주로 다시 내려와 집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3. 2년 전 인터뷰하고 난 뒤 혹시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 일단 저에게 제과제빵에 관해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모르는 친구들도 SNS를 통해 연락 와서 상담하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 자극이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Q4. 제빵 일을 하면서 힘든 적이 있다면?
- 학생 때는 주변에서 다들 인정해

주니 힘든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0살이 되고 사회에 진출해보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 투성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 천지라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마음대로 안될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존감 케어도 중요한 일 같아요.

Q5.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제빵 일을 하시는데 아쉬움은 없나요?
-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과제빵을 시작해 한국 제과제빵가에 대해서는 중학생 때부터 알아봤었어요. 하지만 학비를 지불하고 타 지역까지 가서 배우고 싶은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대학을 포기했어요. 대학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곳에서 충분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회는 없지만 아무래도 대학생활에 대한 부러움은 있죠. 학생이란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불안할 때도 많지만 전 지금 제 자신의 삶에 만족도가 높아서 괜찮습니다. ㅎㅎ

Q6. 가장 자신 있는 빵이 있다면?
- 아무래도 마카롱..? 진주여고를 다닐 때 자주 마카롱을 만들어 학교에 들고 갔어요.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친한 동생들, 밀에 학년 아이들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서 사 먹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ㅎㅎ 마카롱 싫어하는 친구들도 잘 먹어줘서 참 고맙았어요.

Q7. 2년 만에 다시 필통과 인터뷰하는 소감은?
- 오랜만에 인터뷰하니 신기하고 재밌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저처럼 원하는 길로 바로 취업하는 친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저는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때의 제가 생각해서 저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Q8. 제빵 일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음 사실 제빵 일이란 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중에도 도망간 사람을 꽤 봤어요.



<2016년 7월 필통 이달의인물 내용>



<졸업후 그녀는 자기의 케익을 만드는 제빵사로 일하고 있다>

제빵 시작하는 친구들은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파이팅.~

[취재/ 김정빈(진주고2)기자]

[동아리탐방] 동명고등학교 플로어볼 동아리

고교 유일한 플로어볼 동아리 Adler 경남대표로 전국대회 참가합니다!



<동아리 부장 3학년 4반 김도연>

많은 동아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제일 먼저 운동과 관련된 동아리가 떠오를 것이다. 누구나 알만한 구기종목들이나 잘 알려진 생활체육 동아리들도 있지만 진주동명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운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다.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름마저 생소한 플로어볼! 플로어볼 동아리 Adler를 만나보았다.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명고 3학년 플로어 볼 동아리 부장 김도연입니다.

Q. 동아리 소개를 해주세요
A. 하키를 변형한 새로운 스포츠 플로어볼을 하는 진주내에서 유일한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명의 플로어볼 동아리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실력있는 팀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Q. 플로어 볼이라는 스포츠가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플로어 볼은 하키를 변형한 새로운 스포츠입니다. 하키의 경우에는 몸싸움이 심한데 반해, 플로어 볼은 몸싸움에 엄격하고 좀 더 신사적인 스포츠입니다. 체력 소모가 커 신체 단련에 많은 도움이 되며, 팀플레이를 통해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Q. 동아리에 운동을 잘하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동아리이기 때문에 운동 실력이 좋은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이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생 위주로 뽑습니다.

Q. 동아리 시간에는 무슨 활동을 주로 하나요?
A. 처음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합니다. 개인 기술훈련으로 드리블을 연습하고 2명이 짝을 지어 쇼트 패스, 롱 패스를 연습한 뒤 전술 훈련과 실전 훈련으로 끝마칩니다.

Q. 플로어볼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A. 먼저 플로어 볼은 교체가 자유롭습니다. 태클에 대해서 엄격하고 발로 공을 한 번 정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 덕분에 하키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Q. 동아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올해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올해에는 경남 대표로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Q.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A. 먼저 전문지도자가 없어 수준 높은 지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점은 작년부터 국가대표를 초청하여 수업을 하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주에서 플로어 볼을 하는 고등학교가 전무해 선수 폭이 좁고 전술이 부족한 점이 흠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플로어 볼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스포츠입니다. 경기를 관람하게 되면 스펙타클하고 보는 재미가 있으니 플로어 볼을 관람, 체험하고 싶다면 동명고 플로어 볼 동아리를 찾아와주세요.

[취재/ 김민희, 김동민(동명고1)기자]



<플로어 볼에서 스틱을 잡는 기본 자세>



<실제 경기 모습>

[현장취재]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필통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기성장캠프

진명여중, 진주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봉원중학교 참여

지난 10월13일~14일(토~일) 1박2일 동안 하동군 옥종면 소재 농어촌인성학교 정티움마을에서는 진명여중, 진주중, 진주여중, 진주중앙중, 봉원중학교 5개 중학교가 주최하고 (사)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이 주관한 '필통과 함께하는 청소년 자기성장캠프'가 열렸다. 201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각 학교 학생 7~8명, 총 36명의 남녀 중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본 캠프에 앞서 10월10일(수) 오후 4시, 과기대 100주년기념관 아트홀에서는 캠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조편성과 참가학생들간의 벽깨기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다.

본 캠프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3명이 한 조를 이뤄 공개되지 않은 최종목적지를 미션을 수행하며 중간 경유지들을 거쳐 찾아가는 목적지 찾기 미션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정티움마을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는 공동체놀이 '물레방아 오리엔티어링' 저녁에는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 조별 게임과 야식타임으로 이어졌다. 필통카드 찾기 기상미션과 함께 시작된 둘째날은 조별 영상&신문 만들기과 발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소감발표와 최고점



수를 획득한 1,2위조에 대한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일정을 마쳤다.

짧은 1박2일, 낯선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경험, 자신을 돌아보고 잊고 있었던 자기 주위의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 그

리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빛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캠프의 슬로건처럼 참가 학생들 스스로를 조금씩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한다.

[필통편집국]



〈1박2일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캠프였다.〉



특별반, 노력의 보상 VS 경쟁을 부추기는 차별

우등반 친구의 노력만큼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 나의 노력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으로 등수가 매겨진다. 그 등수에 따라 학생들은 당근을 받거나 혹은 채찍을 맞게 된다. 당근이라 하면 상위 00등 안에만 들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야기한다. 진주 시내 학교 대부분 특별반을 운영하여 그들에게 특권을 준다.

이 특별반의 존재를 두고 늘 말이 많다. 우선 특별반은 학생들을 결과적으로 차별한다는 의견이 있다. 많은 학생들은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력의 결과고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우등반에 들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학교의 입장에서라도 입시 결과를 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등반이 있다는 것은 분명 차별이다. 우등반이 있다면 나머지는 열등반이라는 것 아닌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함께 공부시키는 것이 학습효과나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입장에서라도 대학입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타까운 것은 꼭 이렇게 우등반을 나눠서 공부를 시키고 성적이라는 것만이 학교에서 절대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등반 근처에도 못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등반에 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다. 우등반에 들고 들지 못하고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이 기사를 보고나서 '아.. 난 우등반이 아닌데..' 하고 주눅

드는 학생들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우등반에 속해있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우등반에 들지 못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등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나 그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반에 들어가는 학생들만큼이나 똑같은 노력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아닐까?

[취재/ 임수중(진주2)기자]



먹는 건 안 귀찮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점심을 먹고 또 몇몇 친구들은 석식까지 학교에서 해결하곤 한다. 보통 급식은 한 급식 판에 덜어주는 양의 급식을 먹는다. 급식을 먹은 후 잔반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당일 메뉴에 따라 김 포장지, 야쿠르트병, 꼬챙이 등이 쓰레기로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급식을 다 먹은 후 학생들은 잔반통에 잔반을 버리고 급식판을 정해진 장소에 두고 나간다. 물론 쓰레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잔반통 옆에 따로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 그곳에 버리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식사 한 급식소 식탁위엔 늘 쓰레기들이 즐비하다.

왜 일까? 이유는 뻔하다. '귀찮다.' '다른 사람이 치우겠지' '스스로 치울 생각조차 없었다.' 정도일 것이다. 학생들의 그 '귀찮음'으로 영양사 도우미분들과 급식 도우미 학생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교에서 수업만 교육이 아니다. 급식도 분명 교육의 일부이다. TV뉴스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원지나 강변, 축제 뒤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오버랩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밥 먹고 자기가 남긴 김 봉지 치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등굣길 공포와 부담, 선도부 꼭 필요한가?

선도부, 학생들 사이의 배려와 존중 필요하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교문 앞에 서 있는 선도부들을 마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고생이라면 '선도부'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게 된다. 선도부는 일반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동과 생활모습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을 말한다. 선도부는 학생들의 복장단속이나 두발과 같은 교내규율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일이나 등교 시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선도부는 익숙하다.

교문앞에선 선도부 학생들이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복 명찰을 달고 있는지, 가방은 교칙에 적합한 것인지, 색깔 있는 양말이나 발목 양말을 신지 않았는지, 머리 길이가 턱 선을 넘지 않는지... 등을 일일이 검사하는 학교가 있다. 선도부에게 적발당하면 이름이 적히고 벌점을 받거나 군대식 기합을 받기도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선도부들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만화책이나 잡지, 군것질 거리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해 책을 압수당하고 벌점을 매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이므로 어느 정도의 규율이나 통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규율이나 통제를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가 꽤나 위협적이게 행해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담감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A 학생(17) : 내가 걸리지 않아도 내 앞에 나란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위협감을 주고 무서워서 선도부가 서있는 날에는 자동으로 눈을 바닥으로 내리 깔고, 걸릴 이유가 없는데도 조마조마 하며 등교해요.

B 학생(17) : 많은 사람의 눈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내가 걸리는 건 내가 교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걸리는 것이라 상관없지만, 등교하면서 선도부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듯 학생생활지도부, 또래지킴이 등 명칭은 다르지만 학교마다 비슷한 선도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실적으로 학생 전체를 단속하기엔 교사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인데,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학교 폭력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또한 선도부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하지만 등굣길 학교 앞에 서있는 선도부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위축감을 느낀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학생을 선도한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며 학생자치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기도 한다. 또한 선도부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의 의미로 보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도부가 왜 있어야 되지? 만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교칙이 논의되고 만들어진다면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완장을 두르게 하고 일방적인 단속과 적발을 위한 또 다른 학생들을 만들 필



요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학교에선 선도부가 학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선도부, 서로 간 배려와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등굣길 공포와 부담이 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취재/ 김서영(경해여고1)기자]

학교는 안전불감증을 교육 받는 곳?

방치되는 소화기 없도록 안전관리 최선을 다해야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진압을 위해 대부분의 가정과 관공서, 건물들은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있다. 학교에서도 각 교실과 복도 등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다. 눈으로 확인이 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소화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소화기는 평소엔 쓸일이 없다. 학교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소화기는 그 역할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만일에 대비해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소화기와 같은 안전 시설이다. 그러나 큰 사고 뒤에는 항상 '인재'라는 말과 '안전불감증'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닌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벽속에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소화기를 보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소화기와 같은 안전시설물들은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학교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1년에 사이렌 소리 몇 번씩은 듣는 것이 예사일 듯 소화기 관리도 높은 점수를 줄 처지는 되지 못한다. 방치되어 소화기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언제쯤 점검을 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의 소화기를 발견하게 된다. 모 교교의 경우는 보관함의 아크릴 판이 대부분 깨져 떨어져 나간 상태다. 매년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그늘 하나 없는 운동장에 불러내지만 정작 이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르면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 소화기 외부에 붙어있는 압력계의 바늘이 초록색을 가리키면 정상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말 형식의 소화기가 장기간 어떤 자극도 없이 방치된다는 점은 소화기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현대 사회, 더구나 학교는 더 없이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다.

지금 학교에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만성이 되어버린 학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 그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내에 있는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 학교에서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소화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취재/ 박병규(진주고1)기자]

환경오염의 댓가로 수행평가 점수를?

과정형 수행평가는 좋지만 진행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최근 학생부 평가가 강화되면서 수행평가 또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과제형 수행평가는 사교육에 맡겨 버리거나 학생이 직접 하지 않는 등의 폐단이 많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교육부에서 내려준 해결 방안이 바로 과정형 수행 평가다.

교육부는 2016년에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과정형 수행평가를 통해 이전의 폐단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전처럼 어떤 과제를 내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조별 활동을 통해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을 평가하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형 수행평가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런 수행평가의 특성 상 학교에서는 무언가는 조원들과 함께 제작하거나,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원들이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낭용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K고등학교에서 특정과목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와서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학생들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공지 된 준비물인 빨대와 나무젓가락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제작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거쳐 또 반복해서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처음의 구조물이 실패했다면 그 재료가 되었던 빨대는 이미 구부러지고 접혀져서 다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너무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었으며 또 곧바로 버려졌다. 더구나 그 수행평가의 실험이 끝나자 만들었던 모든 구조물은 다시 폐기되었다. 교실에는 수행평가를 마칠 때마다 플라스틱 빨대가 한 가득씩 쓰레기를 만들어 냈고 그 많은 양의 빨대는 버려졌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다. 환경파괴를 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학업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과정형 수행평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 교육은 국가도 개인도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이 환경오염



을 만들고 그 댓가로 점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인 광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행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나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구를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점을 고려해서 수행평가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대학생 선배가 말하는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을 가다

법학도를 꿈꾸십니까? 그래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경상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강민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인 학생회장 김강민입니다. 저희과는 1980년에 개설되었던 법경대학 법학과를 모태로 하여 1987년 법과대학으로 승격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경남 유일의 국립 법과대학입니다.

Q. 법학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법학과에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이나 형사, 민사법은 물론 특수법등 다양한 법들을 배우고, 폭넓은 법적 소양을 기르며 졸업 후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Q.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A.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직이나 법원·검찰직의 공무원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또, 진주의 저작권위원회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많이 가고 있어요.

Q. 법학과에 가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나 스펙이 필요한가요?

A. 법학과에서는 1학년부터 난해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기초지식을 다져 놓으면 학과 공부가 좀 더 수월해 질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갖춰지면 좋겠조.

Q. 어떤 학생들에게 법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으신가요?

A. 로스쿨 진학이나 검·경찰직 공무원같이 진로가 확실하게 결정된 학생들은 물론 자기가 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상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Q. 법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A. 코칭 심리학자인 김윤아씨가 쓴

‘말 그릇’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말을 논리적으로 남들에게 조리 있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찾아내 나답게 말하 재 느낌이 올 거예요.

Q.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 등을 보면 어떤 생각이?

A. 뉴스 같은 매체들을 보면 법조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곤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렴하고 공정한 법조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사법농단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들더

**"사법비리는 뿌리 뽑혀야 하지만
그래도 청렴하고 공정한 법조인이 훨씬 많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라도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사법부입니다

Q. 최근 PC방 살인 등에서 볼 수 있듯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여론이 높는데?

A.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형사 처벌의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 있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들은 바뀌었으면 해요. 흉악범이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은 상식이니깐요.

Q.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A. 저는 예전부터 부산가정법원

사람은 그런 진심이 있어야 하죠.

Q. 경상대 법과대학 자랑을 하신다면?

A.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에는 현재 21명의 교수님들과 500명 가까운 학생이 법학 연구와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경남 유일의 국립 법과대학으로서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과 상법 행정법 노동법 국제법 지적재산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하여 정의로운 법학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다는 점이 큰 자랑거리죠.



〈대규모 국제회의용 대법정과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



〈법과대학은 60억 상당의 자산으로 설치된 '경상대학교 김순금장학재단'의 특별장학금 지급은 물론 경상대학교 법학장학재단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기중에는 모의재판 등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되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18 전국 로스쿨 랭킹]

서울대 5년 연속 종합 1위, 사립대 최강 고려대 우뚝

2018 전국 로스쿨 랭킹 종합 순위				
순위	로스쿨명	총점	2017 순위	변동
1	서울대	426	1	-
2	고려대	402	2	-
3	연세대	392	3	-
4	성균관대	302	4	-
5	한양대	230	5	-
6	서강대	152	6	-
7	이화여대	102	7	-
8	경희대	101	12	4▲
9	중앙대	78	15	6▲
10	한국외국어대	65	10	-
11	서울시립대	52	15	4▲
12	부산대	50	8	4▼
13	경북대	38	10	3▼
14	전남대	36	9	5▼
15	건국대	31	19	4▲
15	아주대	31	22	7▲
17	제주대	20	14	3▼
18	강원대	19	21	3▲
19	충남대	18	17	2▼
20	전북대	17	13	7▼
21	원광대	16	22	1▲
22	동아대	13	25	3▲
22	영남대	13	24	2▲
22	충북대	13	19	3▼
25	인하대	7	17	8▼

2018년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법조인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정식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간 로스쿨을 통해 배출해 낸 법조인만 1만여 명에 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법조인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40%가 로스쿨 출신인 셈이다. 또 올해는 지난해 사법시험(이하 사시)이 폐지되면서 법조인 양성 체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 첫해이기도 하다.

'2018 전국 로스쿨 랭킹' 종합 순위 결과 1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올해도 종합 순위 1위는 총점 426점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의 몫이었다. 5년 연속 왕좌의 자리를 지키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 으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과거 '대한민국 법조계의 산실'로 불렸던 서울 법대의 명성과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특징이다. 입학 정원만 보더라도 150명으로 국내 로스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정원이 가장 많은 만큼 매년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해 내는 곳 역시 서울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내 법조계에서 '인재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 순위 2위는 총점 402점을 획득한 고려대 로스쿨에 돌아갔다. 5년 연속 서울대에 이어 종합 순위 2위를 고수 중이다. 다만 사립대만 놓고 보면 5년 연속 1위에 오르며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다졌다.

올해 급격한 순위 변동은 8~10위에서 일어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 로스쿨의 부진이다. 작년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작년 순위에서는 8위 부산대를 포함해 전남대(9위)·경북대(한국외국어대와 공동 10위) 등 3곳의 지방 로스쿨이 종합 순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다. 한경비즈니스가 전국 로스쿨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방 로스쿨 3곳이 톱10에 진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방 로스쿨은 모두 종합 순위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부산대 로스쿨로 종합 순위 12위에 그쳤다. 다만 지방대 로스쿨만 놓고 본 순위에서는 여전히 1위를 지키며 자존심을 세웠다.

종합 순위에서 지방 로스쿨들이 빠진 자리는 경희대(8위·101점)와 중앙대(9위·78점) 로스쿨이 대신했다. 이 중에서도 중앙대의 재도약을 가장 주목할 만하다.

[JOB을 잡아라] 이창룡 감정평가사를 만나다

세상에 가치를 매기는 아주 특별한 일 공정성과 객관성은 필수, 윤리의식이 없으면 안 돼



니다.

Q. 감정평가사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별다른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대학교 재학시절 유망자격증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했던 것이 바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Q.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간의 실무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Q.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언제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물론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공부할 과목들이 그리 간단치가 않죠.

Q.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학과가 있다면 어떤 과가 있나요?

— 관련 과목이 있는 학과는 경제학, 법학, 회계학,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등이 있지만 전공여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지원 합니다.

Q. 현재 경남에 감정평가사는 몇 명 정도 있나요?

— 현재기준으로 경남에는 1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소속:137명, 개인:27명)

Q.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감정평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또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력과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판단력은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필수 자질일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Q. 지금까지 평가하신 땅이나 건물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일은 무엇인가요?

— 동전일반산업단지(천오백억 정도), 타니골프장, 기타 선박(삼백억) 등등이 있어요.~~

Q. 비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제안을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 윤리의식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 직업입니다. 어떠한 평가사라도 이러한 유혹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직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금액을 평가하면 그 금액대로 집행되므로 나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Q. 혹시 감정평가사라는 일 때문에 생긴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 직업이 그렇다보니 뭐든 딱 보면 가치를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종이 자기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 투자자의 박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 자신들의 부동산 구매는 잘못해요.

Q.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요?

—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약 9000만원부터 7300만원, 57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감정평가사들도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 감정을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 빈집에 감정하러 들어갔다가 황소만한 개한테 몰릴 뻔한 경우가 있어요. 완전 걸음이 나실려라.. ㅎㅎ

Q. 감정평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전문직종이다보니 보통 4~8년 정도의 수험기간을 가지며 고3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흔히 자본주의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가용, 우리가 생활하는 집과 건물 그리고 토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랬던 적이 없으셨나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정하는 직업. 뭔가 특별하지 않나요?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이창룡 감정평가사를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21년째 감정평가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이창룡이라고 합니다.

Q. 감정평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 간단히 설명해주자면 땅이나 건물 등을 평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직업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동산(공장,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영업권,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이와 같은 평가물을 대상으로 내용, 성능, 구조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대상물별 감정방법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감정방법을 선정한다

만족도 높은 전문직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정평가사는 급여의 만족도나, 직업의 지속성, 근무조건, 수행직무 만족도 면에서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전문직 순위 직업입니다. 감정평가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과연 유무형 자산을 감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산은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예들 들면 부동산의 노후도, 혹은 교통 조건 혹은

주변 발전가능성 등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자산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그 경제적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에 통용되는 자산들은 모두 가치를 갖기 마련이며 이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는 그만큼 사회적인 중요성이 높

은 직업이며 전문성 높은 분야인데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국가적으로 업무가 배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편이어서 만족도 높은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되는 방법]

전문직 직업, 감정평가사는 직업이 갖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연 1회 시행되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곧 직업의 면허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객관식 →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시행되며 실무수습 후 등록을 하면 정식 감정평가사가 되는데요. 물론 시험 난이도가 쉽지는 않으니 정확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방법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겠죠?

1차는 민법 중 총칙과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회계학, 영어, 감정평가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총 3과목입니다. 최근에는 연간 200명 정도의 감정평가사가 선발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합격률은 2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까요?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물론 서울이겠죠. 네, 바로 서울 중구 명동 8길 52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자리입니다. 2018년까지 15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1㎡당 가격이 9,130만 원으로 과거 사용하던 평(3.3㎡) 단위를 적용하면 무려 1평에 3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임야로 1㎡ 당 205원에 불과하여, 최고가 땅과의 가격 차이가 무려 45만 배에 이릅니다. 물론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국토부 역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2016년 기준으로 67%라고 발표했으니 실제 땅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미팅] 우즈베키스탄 알레코바 주호라를 만나다

드라마, 한국어, 그리고 새로운 도전 노력은 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줍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경제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는 주호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두 달정도 되었어요. 한국어를 친언니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는 것을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도 5급을 받고 제 열정을 보고 믿어주셨죠.

Q.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요. 조금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역사적인 도시들과 유적지들이 엄청 많아 매년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그런 곳입니다.

Q. 한국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한국을 접한 건 솔직히 드라마였어요. 처음 봤던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였죠. 좋은 인상을 남겼고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어를 꼭 배우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죠. 공부하다보니 세종대왕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외국어보다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글이니까요. 결국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의 대학에 꼭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A. 매력이 많죠. 무엇보다 와서 생활하다보니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Q. 한국에서 문화가 달라 난처하거나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A. 네.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은 너무나 맵고 입에 잘 안 맞아서 고생했어요. 먹다 보니까 익숙



해졌어요. 대부분 한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기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Q. 우즈베키스탄에서도 k-pop이 인기 있나요?

A.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k-pop은 젊은층에게 최고죠. 아이돌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방탄소년단, 저도 방탄소년단... 아미예요. 개인적으로 정국과 지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Q. 한국과는 다른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방식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한국과 조금 다른데요. 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 동안은 의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k-pop은 젊은층에게 최고죠.
저도 방탄소년단 아미랍니다.”

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꼭 입학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리체이와 컬리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체이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컬리지는 전공 교육이라서 졸업 증서에 전공이 적혀있어 취직하기에 쉽습니다.

Q.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은 이성간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달리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나 이성교제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죠. 종교의 영향도 있고 해서 연애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킨십에 대해서도 보수적이죠.

Q.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A.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 재미있는 활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많이 합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Q.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입시는 어떤가요?

A.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입시를 하는 편인데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공부를 위해서,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의학 공부를 했는데 의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 포기했었죠.

Q.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뭔가요?

A.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지만 요즘 누구나 선호하는 베스트 직업을 꼽으라면 대기업 취업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높은 연봉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Q. 의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과를 진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제 전공은 의학이었고 약사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9개월간 약국에 근무를 했었어요. 제 적성과도 맞지 않았고 고된 끝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졸업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행에 취직할 계획입니다.

Q. 경성대를 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한국 교육원을 3년 동안 다녔거든요. 교육원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한국유학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성대학교가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교육 환경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진주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열심히 노력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제가 멀고도 먼 나라인 한국에 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엇이든 집중하고 노력하면 갈 길은 얼마든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막막했지만 노력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더 나은 환경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은 노력한다면 더 나은 길이 열리게 될 거라 믿어요.



〈2018년 9월에 있었던 외국인말하기 대회〉



〈우즈베키스탄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중등전문학교 재학 당시 모습〉

실크로드가 남겨놓은 이름, 우즈베키스탄



미인이 많은 나라 정도로 알려진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은 나라, 우즈베키스탄. 하지만 푸른 하늘, 합리적인 물가, 친절할 사람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적이 잘 보존된 나라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정식명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며, 국명은 '우즈베크인(人)'의 나라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국가로 예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 실크로드가 있어 교역의 중심지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동쪽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시로는 사마르칸트(Samarkand), 부하라(Bukhara), 히바(Khiva), 타슈켄트(Tashkent)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된 비독립국 포함 전세계 국가 수는 242개국입니다. 이중 우즈베키스탄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고작 16개국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재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자발급수익이기 때문에 무비자 협정을 잘 안맺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무비자 협정을 맺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화폐단위 = 솜(Som)

1달러 = 8,050 솜

1원 = 7.5솜

우리나라에서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에서 솜(Som)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가가 저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1회 탑승(거리 상관없음) 1,200솜 = 약 170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우즈베키스탄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영토였으며,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대왕에게 정복되었습니다. 7세기 터키, 8세기 아랍, 9~10세기 사만왕조, 13세기 호레즘, 13세기 후반 몽골, 14세기 티무르 등 다양한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에 정복된 이후, 러시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약 70년간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있다가 1991년 9월 1일 독립하였습니다.

125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 우즈베키스탄인 80%, 타지크인 5%, 러시아인 3.7%, 카자흐인 3.6%, 고려인 0.6%로 구성.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영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문화 위에 유럽식 러시아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생활양식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2,755만 명에 이릅니다.

중등전문학교 3년, 진학과 직업

우즈베크의 교육제도는 2004년 5월 대통령령으로 [2004~2009년 학교교육 발전 국가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학제인 초등학교 4년, 일반중등학교 5년, 중등전문학교 3년의 12년제를 표방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일반중등학교를 합친 9년제 '일반중등학교'에서는 기초교육을 담당하며 3년제 '중등전문학교'에서는 전문직업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등전문학교는 '아카데미 리제'라 불리는데 전문직업의 향상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직업 칼리위'라 불리는 중등직업학교는 학생들에게 일반 중등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 개 이상의 현대적 직업기술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 사공이

안녕 사공아. 음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여기에 편지가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너한테 써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한 번 써봐! 생일 맞추서 보낼 걸 그랬나?? 너랑 중학교때 더 많이 놀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 생각보다 고등학생 되니까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시험이다 뭐다 하면서 얼굴 한 번 보는게 쉽지 않아..ㅠㅠ 유등 축제도 같이 보러 가면 좋았을 텐데..

중학교에서 너랑 너무 재밌게 놀아서 좋았는데.. 너도 그렇지??? 맨날 밥 먹고 배운 과자 먹으면서 한 개도 안 뺐다고 그러고 ㅋㅋ 사실 난 진짜로 하나도 안 때렸어 그리고 빈즈 모양도 맞추고 맛있게 먹는 법도 연구하고! 난 계속 빈즈 그렇게 먹고 있어.

제일에서의 학교 생활은 재밌는지? 거기서도 사랑 많이 받아야해! 내가 공부하는 거 찍어 보낼 때마다 힘들진 않은지, 잘 하고 있을 지 살짝 걱정도 되지만! 사공이라 하면 어디 가서든 잘 할 스타일이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내가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마. ㅎㅎ 이만 난 갈게..

(혹시 제일에서 1학년 3반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18번 학생이 꼭 읽게 해주세요!!)

- From. 호떡맘



T. 울 공주들

안녕?? 필통으로 편지 써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단. ㅋㅋ

우리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단. ♥♥ 맨날 시험 끝나거나 특별한 날 있으면 밥 먹으러 가서 기본으로 2시간은 앉아서 먹공. ㅋㅋㅋ 니네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드는 것 같단. ㅋㅋ 우리 1년 넘게 같이 다니면서 왜 다 같이 찍은 사진이 한장도 없나?? 진짜 우리 레알로 찍기만 하고 다니는 듯 ㅋㅋ

여튼 이제 우리 2고 생활도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처럼 만 열심히 해서 꼭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 수능 끝나고 일본 여행 가는 거 안 잊었지?? 잊어 먹은 사람 내가 찾아



간다말 ㅋㅋ

마지막으로 이예진 송주희 김수진 김서현 정지우 내가 제일루 사랑해 ♥

우리 6명 우정 영원하자아 ♥

- From. 전예진

T. 진명사반행동대장오지윤

우리 이쁜 진명 사반 이제 졸업도 끝이고 그래서 이렇게 필통에 편지쓰단. 진짜 진명 마지막 삼학년들 너네들 이랑 너무 재밌게 지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 ㅠㅠ 가끔은 싸우고 물론 지갑도 사이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까지 서로 잘 지내줘서 고마워 4반 ♥

강도경-4반 은비,민선지원,미연준영,지은채린,영인 이쁘니들~ 내가 많이 아끼고 사랑해 ♥ 3학년때 너희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 고은비-우리만 너무 재밌었고 갓지 추억이 되었어.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내고 여행하자. 사랑해 ♥ 김민선-진명 3년의 마지막을 함께해서 다행이라 생각해~ 고맙웠음. 4반 즐거웠단.(도지원보다 예쁜 나) 도지원-친구들 사랑해 남은 날도 행복하자. 뽀뽀 우리 너무 예뻐~ 특히 나 ♥ 신미연-우리 공주들 사랑해 사랑해 알려줘 알려줘 겨울방학에 놀러가자 ♥ 우리반에서 우리가 제일 이쁨 ㅋㅋ 안준영-섹시퀸 9명 커서 흉대 오면 내가 신라호텔 데려가줄게. 고등비만 들고 오면 내가 떡이고 채워줄게. 사랑해 ♥ 이채린-진명 3학년 4반 예뻐니들!! 너네들 만난 게 참 행운이긴 같다는 생각을 해 ♥ 이렇게 잘 맞는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학년 끝마침도 잘 마무리하자 ♥ 정영인-4반에서 제일 예쁜 9명!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해도 자주 만남시다. 놀



러가자. 고기, 치킨, 피자, 당발, 막창, 떡볶이 다 먹고 돼지 도자~ ♥ 반장 강보경-언제든 우리 처음 만난 거 같은데 지금 벌써 1학기가 지나고 2학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 내가 반장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건데 좋게 봐 주서 정말 고맙워. 반티 정하면서 약간 틀어지기도 했지만 꼭 밀당하자! 3학년 얼마 안 남았지만 싸우지 말고 재밌게 추억 만들자! 사랑해 3학년 4반!

- From. 진명 3학년 4반

T. 현주에게

안녕 현주야 ♥ 나 소원이야! 깜짝 놀랐지?? 이런 공개적인 편지는 처음이네. ㅋㅋㅋ 생각해보니 중학교 올라온 이후로 너한테 편지 한번 제대로 써본 기억이 없네. 익숙하고 편한 너라서, 그런 익숙함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너랑 나, 무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을 넘게 함께하고 있는데.. 미안해 안현주. 그 대신 약속 할게! 항상 널 응원하겠단고. 나한테 넌 항상 힘이 되는, 그런 친구니까(개오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난 니편에서 서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힘이 될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평생 친구하자. 징글징글할 정도로 오래오래 장수하고



할머니 뽀뽀 먹자.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곧 성인이나가 크면 어디든 가서 신나게 놀자! 복한을 가더라도 핫플로 만들어 버릴 각오로! 고맙고 사랑해 안현주 ♥

- From. 소원이가

T. 권영 대담 진우 서진 동연(생일순!)

안녕! 난 진우 얼마 1호 원영이야 :)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이제 중3에서 고3이네.. 이거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고3 되면 니네 공부 할까봐 연락 뜸해지기 전에 함 써 본다. ㅋㅋ (이거 내 아니면 누가 쓰니..) 진짜 중학교 때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어느새 평생을 기억하는 친구사이로 발전했네. 졸업할 때 고등학교 가서 뽀뽀하면 되겠다 하면서도 이놈들 진짜 연락 안 하면 어쩌지... 하다가도 꾸역꾸역 연락하면서 만나는 것 같아서 기쁘다. 우리가 커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보다 더 오래 볼 사이인 거 알지? 구경게 오래 볼 사이인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끼리는 힘들고 슬프고 기쁘고 짜증나고 하는 거 다 숨기지 말고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수능 끝나고 일본 가서 술 마시기로 했잖니? 니네 필통 나온 거 축하하고 (감동 먹은 거 아니제)



이거 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거 같아서 해 봤다. ㅋㅋㅋ 아 그렇다고 일부러 연락 안 할 필요는 없고 서진이 명신 다느라 집 못 데고 온 거 미안 ㅠ ㅠ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연락 자주하자 16346012!!

- From. 유원경

T. 스누피 덕후

안녕! 내가 사랑하는 스누피 덕후야~ 나는 짱구야. 나한테 이렇게 수능을 응원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연히 학생 신문인 필통으로 전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7년의 어느 겨울 롯데시네마 제일 안쪽 자리에서 부터 시작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 지금 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치? 다투기도 싸우기도 같이 울기도 함께 웃기도 서로 눈치 살피기도 했다. 그치? 참 값진 행복이자 경험이었어요. 내가 한 사랑을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사랑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커지지만 할거야. 많이 사랑해. 최근에 우리가 11월 15일 수능이 다가오는 압박 때문에 더 많이 다투고 그랬어요.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스누피 덕후의 그 환한 미소 한방이면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서

로 조금씩 예민하기는 해도 나는 짱구니까 네 남 자친구니까 옆자리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응원해 줄 거예요. 많이 사랑해 줄 거고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많이 사랑해! ♥ 얼마 안 남은 수능 열심히 ~ 밤 늦게까지 노력 하는 만큼 100% 아니 120%의 능력로 잘 마무리 하고 이곳 저곳 같이 돌아다니다 남 눈치고 뛰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우리 둘이 하고 싶은거 많이 하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남은 거는 수능 잘 마치고 나올 때 팔 벌리고 있을 나한테 안겨서 웃는 얼굴 보여주는 거야. 잘 할 수 있지? 여친님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자 파이팅!! 아자 아자 잘 할 수 있지? 사랑해 ♥

- From. 짱구

T. 민지



민지야! 고등학교 와서 너를 처음 보는데~ 첫날부터 너무 분위기가 이뻐서 눈길이 갔었어.. 지금은 말 안해도 정말 친한 사이가 되어서 너무 기뻐!! 벌써 슈스의 길을 걷고 있는 너가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배움님 3년뒤 신인상대면 꼭 내이름 말해 주라~

- From. 너의 팬.

T. 포포포



포포포~ 하이! 이제는 필통편지까지 쓰네. 예효효.. 써서터퍼레드니까. 써주는 거야~ 빨리 여수 간장게장 먹으러가자. ㅠ 그리고 우리 꼭꼭 대학교 같이 붙어서 성공하자. 우리 평생 보는 거야~ 빠이!!

- From. 윤재



T. 킨볼남

어이 이쌍후이 니한테 쓴다. ㅠ ㅠ ㅠ ㅠ 아 니랑 내랑 똑같은 처지다. 우리 얼굴 안본지 진짜 완전 오래 됐거든~ 빨리 주말안서 둘이 놀러가자!! 너무 보고 싶다 이쌍후이. 나 진짜 말할 꺼 개 많으니까 빨리 만나서 내 이야기 들려줘. 보고 싶어 언젠 보자~

- From. 이민형



제11회 진주같은영화제에서는 단편 8편, 장편 7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제작된 영화, 쉽게 보기 힘든 단편영화부터 지역에 개성되지 않아 아쉬웠던 독립, 예술영화, 지역의 청소년들이 선정한 고전영화까지!!
진주같은영화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티켓 안내]
-개막작/폐막작/초청작/지역단편/일반단편/지역
장편 : 7,000원
-청소년 선정(로마의 휴일) : 4,000원
[인터넷 예매] 극장 먼저 선택 - 진주시민미디어
센터 선택 - 관람작 선택
[직접 예매] 전여좌석 확인 및 선택 - 예약 - 상영
15분전까지 현장 발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055-748-7306/ 카카오톡 @진주시민미디어센터

11월2일(금)
19:30 <어른도감>

11월3일(토)
13:30 <개의 역사>GV
16:30 지역단편 GV <경화> <호루라기> <52Hz>
<밤뉘사>
19:30 지역장편 GV <앵커>
22:00 아간인디씨네 <킬링 디어>

11월4일(일)
10:30 청소년 섹션 <로마의 휴일>
13:30 일반 단편 GV <귀로> <푸르른 날에>
<세이브 미> <자우로>
16:30 <불이가다> GV
19:30 <대관람차> GV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8년 11월 18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천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천을 통해 32분을 추천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반동기영) 당첨도신분들은 필통,휴폐이지 공지사향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에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핑퐁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음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할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2명): 서한우(동명고 1-9)/ 정희현(경해고 2-9)
2등 - 문상 5천원(32명): 박정현(삼원고 1-6)/ 이아람(경신고 3-8)/ 최희현(제일고 2-10)/ 남해진(제일고 1-3)/ 정성훈(대이고 3-4)/ 최광우(대이고 2-10)/ 최은수(명신고 1-7)/ 김도훈(명신고 3-2)/ 최민준(진주고 2-9)/ 황지수(진주고 1-1)/ 백진욱(동명고 3-4)/ 이현우(동명고 1-7)/ 김예린(성영고 2-11)/ 이희준(진고 1-7)/ 조승원(진주고 2-6)/ 김승민(진주가 1-6)/ 문동훈(진주가 2-4)/ 이현정(진양고 1-8)/ 박윤희(성영고 2-4)/ 홍재우(경해고 2-7)/ 이은정(경해고 1-7)/ 김은수(사대부 1-21)/ 서윤정(사대부 3-2)/ 제정연(진주고 1-3)/ 권지후(충양고 2-3)/ 김도수(신서고 1-1)/ 정민혁(자화고 2-4)/ 서정인(진명여고 3-6)/ 신동림(진주여고 3-4)/ 신우성(진주고 3-6)/ 김대현(대마초 3-4)/ 이한정(충양고 2-3)

※ 당첨된 분은 학생지나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981.89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디자인의 모든 것!
노는아이!  minijebi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포스터 / 전단 / 명함 / 스티커 / 리플렛 / 팜플렛 / 봉투 / 현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간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B) / 파워포인트제작

[illegible]

활동지정 배우처 | **〈천전동〉**글라스박스/채산당/제일좋은약국/소조백방/신월해어/초록마을/커피포트/공세상/칠암주민센터/녹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옥호수학/동훈서점/신성로서관/소문난서점/신한샘터점/커피북은<신안, 평거, 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곳/블레스유/황금알강장탕/한빛교회/정인미소/신세계수영장/만리장성(시해방/와비/피아노)/화1구역점/우파출/큰비위서점/전주문고/새하학원/전주명예교회/아이클럽전주점/임정현물류유통서비스점/대타사점/여중문고/성지향(시나지역)제일안경원/등산교회/다림/죽형/태오김밥/감각장애/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당서점/예원/대양서책/비치/필지정서소/한양꽃집/YMCA/열도교복/학생서/교회사/디스커버리/노스페이스/구단현행/플랙스카/빌라아웃도어/오프로드/노크레이프/요미요미/카요일두리/무학/태돌출판/본간건축/대충출판/씨배/저주교과/부네나아트/엠티츠/조주식미술/다양체재/도움자주식점/WCA/상생식품/영덕시장/서가이비/티/노티/세프/캐쉬/주춧발/노스극장/웨들나루/교문서점/매곡문고/같이프렌즈/노스레이크/드림오피스/스톡북/복음기/문학당서점. 흥성서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